

조지훈 목사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며 실재다”

은혜한인교회한여름성령집회
The Joshua Generation 주제
"광야의 시간... 영적 권세 지니고
세상에 서기 위한 훈련 과정"

은혜한인교회(한기흥 목사)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조지훈 목사(기쁨이있는교회, Joyful Church)를 초청해 'The Joshua Generation'을 주제로 한여름 성령집회를 진행했다.

일산 기쁨이있는교회는 전체 성도 중 청년 및 청소년 등 다음 세대의 비율이 절반(약 50%)에 육박할 정도로 젊은 층의 비중이 높은 곳으로,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사역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훈牧사는 지난 7일 '광야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신명기 1:31)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 가운데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모세의 삶을 예로 들며 "광야 생활의 끝은 부르심으로



은혜한인교회가 조지훈 목사(기쁨이있는교회, Joyful Church)를 초청해 한여름 성령집회를 진행했다. © 기독일보

끝난다. 광야 훈련의 끝은 부르심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라며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사명을 받는다. 권위가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다.

그는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서는

것이 쉽겠나. 모세는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였고 두려움에 갇혀 있었다"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실 때, 일을 하게 하실 때 반드시 그 안에 있었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다. 두려움은 사탄의 권세인데, 이것에 사로잡히면 아

무것도 할 수 없다. 두려움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며 "요즘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사역자들도 그렇다. 그만큼 세상이

힘들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 목사는 세상이 추구하는 권력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권세를 비교했다.

그는 "세상은 돈이 있으면 그것이 권력이고 권세가 있는 사람으로 증명된다. 지위가 있으면 권력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한다"며 "돈, 돈 플러스 학위, 돈 플러스 학위 플러스 가문의 순서로 간다. 가문은 권력이 대물림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세상 권력의 정점"이라고 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자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이 없는 것을 가져야 한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영적인 권세다. 세상의 지식과 돈, 가문도 내가 소유할 수 있지만 위로부터 오는 권세는 내가 소유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그래야 담대해질 수 있다"며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두려움이 해결된다. 영적인 권세가 임할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제거되는 것이 신기한 것"이라고 했다.

토마스 맨 기자 → 4면에서 계속

사담 후세인 체포 작전 이끈 美 전 의원, 오지에 복음 전파

이라크 전쟁 당시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미 육군 테스크포스를 지휘했던 전직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전혀 다른 '전선'에서 사역하고 있다. 험준하고 위험한 지형으로 고립된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국제 선교단체를 이끌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 육군 장교 출신인 스티브 러셀(Steve Russell)은 2022년부터 국제 선교단체 '정글 항공·통신 서비스(Jungle Aviation and Relay Service·JAARS)'의 회장 겸 최

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다.

러셀은 JAARS를 이끌며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하지 않은 러셀은 13세 때 교회에 참석하면서 신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후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신약성경을 읽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다.

러셀은 "신약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됐다"며 "나는 죄인이며 내게는 스스로 의로울



JAARS는 특수 항공기와 보트, 오프로드 차량을 활용해 항공기, 보트, 버스 노선이 닿지 않는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jaars.org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는 것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신앙을 돌아서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이후 미 육군에서 복무한 러셀은 오클라호마주 상원의원과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이제 그는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는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본부를 둔 JAARS는 지난 75년 동안 지리적 장벽으로 인해 성경 번역가와 선교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 단체는 자신의 사역을 '선교의 마지막 구간(last mile of missions)'을 섬기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미경 기자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
내 집을 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믿고 선택하시면, 최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213-700-3239
yunyoungkwag@gmail.com
3030 W 8th St. #200, Los Angeles CA 90005

정부보조
상당 환영

NEWSTAR Realty & Inv. DRE# 01935957 **곽 윤 영**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www.marhlaw.com

■ 상법/부동산법 ■뱅크런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래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교회 및 비영리단체도 **최대 40%**를
태양광 설치비의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연방정부의 DirectPay 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B T S SOLAR DESIGN **213-500-8000**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시작해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커머셜 빌딩·비영리단체를 위한
특별한 기회!

교회 및 비영리단체도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40%를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연방정부의 DirectPay 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설치중인 교회



YNC 나성영락교회
YOUNG NAK CHURCH OF LA.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https://youngnak.com/



대흥장로교회
Dae Heung Presbyterian Church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el. 310-719-2244
http://www.dkpc.org



코너스톤교회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el. 310-530-4040
http://www.cornerstonetv.com



세계등대교회
THE LIGHTHOUSE MISSION CHURCH
(213) 380-9931
https://lighthousemissionchurch.com/



B T S
SOLAR
DESIGN

213-500-8000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시작해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및 교회를 위한 맞춤형 태양광 솔루션

✉ btssolardesign@gmail.com

www.btssolardesig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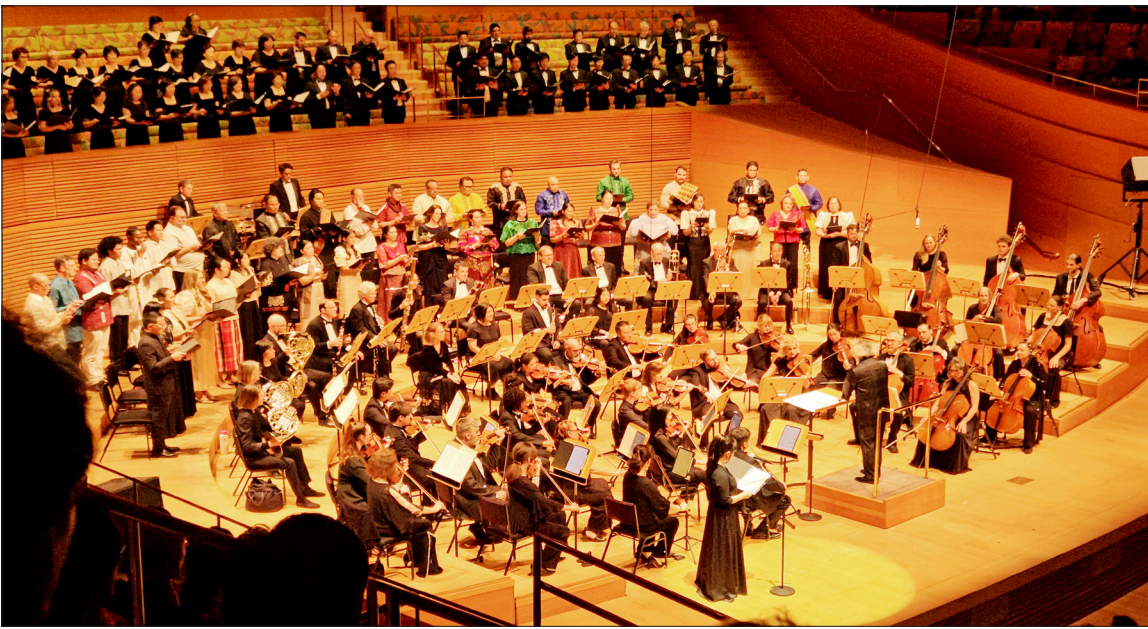
LAKMA, 베토벤의 ‘장엄 미사’ 로 전한 평화의 메시지

필리핀계 합창단 필하모니카(Filharmonica) 랄로(Laló) 협연

다민족 음악단체 LAKMA(로스앤젤레스 한인음악가협회·이사장 최승호, 음악감독 윤임상)가 지난 8일 오후 7시 LA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 ‘Friendship & Harmony’를 개최했다.

‘평화를 위한 기도’를 주제로 열린 이번 무대에는 필리핀계 미국인 음악단체 필하모니카/랄로(Filharmonica/Laló)가 협연했으며, 한국 전통음악과 합창·베토벤의 장엄 미사(Missa Solemnis)를 통해 평화와 연대의 의미를 나눴다.

첫 무대는 에스더 김(LAKMA 코랄, LA채리티 콰이어)의 지휘로 핀란드 작곡가 장 시벨리우스(Jean Sibelius)의 ‘핀란드아’로 막을 올렸다. 시벨리우스는 러시아의 지배와 억압 속에 있던 핀란드 국민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이 곡에 담았다. 이어 남가주에서 활동하는 필리



기쁜우리교회는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하고 장학생 15명에게 총 3만 5천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기독일보

핀계 음악인들로 구성된 필하모니카(FilharmoniCA)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필리핀계 합창단 ‘랄로’(Laló)가 ‘Avinu’(히브리어로 ‘우리 아버지’라는 뜻)와 ‘Alleluia’를 비롯해 카를로스 코데로의 ‘Ayuda Me’(

스페인어로 ‘나를 도와줘’라는 뜻), 존 레넨의 ‘Let It Be’를 선보였다. ‘Ayuda Me’에는 위기와 고난을 겪는 베네수엘라 주민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겼다.

다음 순서로 윤임상 지휘 아래 백남금 편곡의 ‘이어도사나와 섬집아

기’가 에스더 김의 노래로 선보였으며 ‘도나 노비스 파첸(Dona Nobis Pacem·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도 이어졌다.

백남금 작곡가는 제주 전통 민요 ‘이어도사나’와 ‘섬집아기’를 엮어,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이 어

우려진 제주의 바다 풍경을 무대 위에 재현했다.

2부는 윤임상 지휘로 베토벤의 ‘장엄 미사(Missa Solemnis)’ 공연이 시작됐다. 베토벤이 자신의 최고작으로 꼽은 이 곡은 방대한 규모와 높은 음악적 난이도로 인해 자주 연주되기 어려운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베토벤의 ‘장엄 미사’ 마지막 곡인 ‘아그누스 데이(Agnus Dei)’가 끝나자,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LAKMA 단원들에게 감사와 찬사를 보냈다.

이번 공연의 감독과 지휘를 맡은 윤임상 교수(WMU)는 2012년 로스앤젤레스 한인음악가협회(LAKMA) 창단 때부터 음악감독으로 활동해 왔다.

LAKMA는 남가주 전역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기악 및 성악 음악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음악문화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며, 어린이와 노인, 환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재정적 후원도 펼치고 있다.

주디 한 기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은목 목사)는 지난 11일(화) 평화교회에서 ‘AI 통역 시스템 사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 기독일보

잭 켄트 쿡 재단 장학생 모집

잭 켄트 쿡 재단(Jack Kent Cooke Foundation)이 2026년 8월 1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장학생을 모집한다. 쿡 대학 장학 프로그램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우수한 고등학교 졸업 예정 학생들이 미국 최고의 4년제 대학에 진학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부 장학 프로그램이다.

장학금 액수는 개인별 수업료 및 기타 수령하는 보조금 또는 장학금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자는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미국, 미국령 또는 미군 기지 고등학교 2027년 졸업

예정인 학생. ▲ 2027년 가을 학기에 공인된 4년제 대학에 입학할 예정 ▲ GPA 3.75 이상, ▲ SAT, ACT, AP 또는 IB 시험 성적 제출 ▲ 재정적 필요성 (연간 가족 총소득이 최대 95,000 달러인 신청자도 고려) 이외에도 이 재단은 전국의 최고 수준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평균 3.94 이상)이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선발하는 학부 편입 장학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정보는 <https://www.jkcf.org/>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문의: scholarships@jkcf.org

남가주사랑의 교회 여름 성령 축제

남가주사랑의교회(이원준 목사)는 오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금-주일) 여름 성령 축제 “뜨거운 심장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Korean Diaspora Church Mission 대표이자 전 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섬긴 김학진 목사를 초청해 여름 성령 축제를 개최한다.

일시는 8월 14일(금) 오후 7시 30분, 15일(토) 오전 6시와 16일(주일) 1,2,3,4부 예배이다. 뉴욕장로교회에서 7년 반간 사역한 김학진 목사는 2025년 11월 조기 은퇴를 발표하며, 이는 40년간 기도해 온 ‘디아스포라 선교’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파송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교사를 돕는 단체는 많지만, 선교지에 세워진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는 완전히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 교회의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고, VBS나 제자훈련 같은 목회 콘텐츠를 제공하며, 멘토링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선 기자

미주한인기독문인협회 작품 공모

미주한인기독문인협회(회장 송인 목사)가 “크리스찬문학” 2026년 신인상 작품을 공모한다. 마감일은 10월 31일(토). 이 협회는 지난 7월 27일(월) 오전, 임마누엘대학교 강당에서 신임회장단 출범 후 첫번째 월례회를 진행했다. 이번 월례회에

서는 2026년 임시총회 개최, 시낭송콘서트 및 하반기 주요사업 등이 논의됐다. ‘크리스찬 문학’ 신인상 작품 공모 분야는 △시, 시조, 동시: 10편 △수필: 2편 △단편소설: 2편 △희곡: 2편 △평론: 2편이며, 수상자는 협회 회원 자격과 기성작

가 대우를 받게 되며 상금과 상패가 주어진다. 작품 보낼 곳 이메일: insong1@gmail.com insong1@yahoo.com 주소: 639 S. Commonwealth Ave., #209, LA, CA 90005 문의: 213-434-5458(송인 회장)

다민족연합기도대회 및 설명회

2026년 다민족연합기도대회가 오는 9월 13일(주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기도회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시편 144:15)’라는 주제

로 열린다. 기도회에 앞서, 설명회가 8월 17일(월) 오전 10시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다. 이날 설명회에는 대회임원, 다민족기도 리더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은혜한인교회, 자마,

OC교협, 남가주교협, 성시화운동본부, 청교도신앙회복운동 등이 주최하며, 미주복음방송, 크리스천 언론사들과 CMF, OC장로협의회, 각 지역 교협, 목사회 등이 후원한다. 문의: 323-578-7933



남가주한인원로목사회

제85대 회장단 아취임 감사예배

INAUGURATION THANKSGIVING SERVICE

초대의 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가주한인원로목사회가
새로운 회장단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시작합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해 온 귀한 뜻을 이어,
화합과 섬김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부디 함께하시어 새 출발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목사
신임회장

**일시**
2026년 8월 17일(월)
오전 11시

**장소**
사우스패서디나
평강교회(송금관 목사)

**주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문의**
총무 최영봉 목사
(213) 271-5034

남 가 주 한 인 원 로 목 사 회

올림픽장로교회 LA 향한 ‘요셉의 창고’ 비전 제시

이은상 목사 초청 부흥성회
지역사회 섬김의 사명 재확인

올림픽장로교회(담임 이수호 목사)는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달라스 세미한교회 이은상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부흥성회를 열었다.

‘예수 닮기를’(Loving and Serving LA.)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는 금요일 저녁 집회를 시작으로 토요일 새벽·저녁 집회와 주일 1·2부 예배로 이어졌다. 교회 측은 최근 선포한 ‘요셉의 창고’ 비전을 성도들과 나누는 자리로 이번 성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날 이은상 목사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목사는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찾아가 한 여인을 만나신 사건을 통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했다.

이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린 장면을 언급하며, 예수님과 만남이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이웃을 향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둘째 날 집회에서 이목사는 요



올림픽장로교회(이수호 목사)는 달라스 세미한교회 이은상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부흥성회를 열었다. © 기독일보

한복음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표지라고 설교했다.

그는 “사랑은 액션”이라고 말하며 사랑이 실제적인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을 언급하며, 예수를 닮는 삶은 자신을 낮추고 먼저 섬기는 데서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이목사는 이러한 사랑과 섬김이 지역

사회를 향한 교회의 역할과도 연결된다고 전했다. 이같은 말씀은 이번 성회를 준비하고 섬긴 성도들의 모습과도 맞닿았다.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1·2부 예배까지 이어진 성회 기간동안 성도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 안내와 봉사에 참여했다.

이번 성회의 흐름은 이수호 목사가 최근 품어온 교회의 비전과도 깊이 연결돼 있다. 이목사는 한때

보다 나은 환경을 찾아 LA 외곽으로 교회를 이전하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그 과정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기도하며 “장소가 아니라 사명을 구하라”는 도전을 받았다

고 밝혔다.

이목사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와 세미한교회 이은상 목사의 목회를 접하면서 도시를 향한 교회의 사명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세미한교회 방문 당시 성도들이 가진 지역사회를 향한 비전과 사명에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올림픽장로교회가 제시한 ‘요셉

의 창고’ 비전은 성경 속 요셉이 흉년 가운데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가 된 것처럼, 교회도 LA 한인타운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겠다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이수호 목사는 “한 사람이라도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LA에 변화를 이루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교회 측은 앞으로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는 한편, 지역사회를 섬기는 실천 방안도 계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셉 리 기자



해방 81주년 · 건국 78주년, 자유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15일 LA서 기념행사, 우남 네트워크 USA 창립식도 열려

해방 81주년과 자유대한민국 건국 78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는 8월 15일(토) 오전 11시 가든 스위트 호텔 2층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우남 이승만 네트워크 USA, AKUS 한미연합회 LA,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남가주지회가 주관한다.

특히 올해 행사는 ‘우남 이승만 네트워크 USA’ 창립식을 겸해 진행된다. ‘우남 이승만 네트워크’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과 업적을 기념하고 관련 단체들을 네트워크해 온 단체다. 이번에 미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우남 네트워크 USA가 LA를 중심으로 출범한다.

이번 행사는 차세대에게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과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우남 이승만 네트워크 USA 회장 조선훈 장로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잘 알고 있지만 한국의 초대



(왼쪽부터) 박세현 목사(한미연합회 AKUS 사무총장), 조선훈 회장(우남 네트워크 USA), 노명수 이사장(우남 네트워크 USA), 김영구 회장(AKUS 한미연합회 남가주지회) . © 기독일보

대통령이 누구인지 모르는 젊은 세대가 많다”며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음 세대에 알려주고 싶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승만 대통령은 젊은 시절 한성감옥에서 수년간

복역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학업을 이어갔으며,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이끌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를 세우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 건설을 추진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해 한미동맹의 기틀을 마련한 점 등을 주요 업적으로 꼽힌다.

이번 행사에서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전쟁, 정전협정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의 역사와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2세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상영할 계획이다.

행사는 ‘감사의 예배와 기념식’, ‘남북 자유통일을 위한 기도회’로 이어진다. 이번 행사에는 차세대와 탈북민들도 함께 참여해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위해 기도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승만 대통령이 생전에 자유통일을 중요한 과제로 여겼으며, 이번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남북 자유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명수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이를 후세에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역사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세워가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포들이 함께해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역사를 잇는 민족에

게는 미래가 없다”며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가치를 되새기고 함께 지켜나가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설교는 황준석 목사(우남 네트워크 공동대표)가 맡는다.

특별찬양 순서에는 미주여성교람(지휘 오성애 권사)이 참여한다. 차세대들을 위해 영어 진행과 통역도 준비된다. 한인 2세와 3세를 비롯한 다음 세대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자유의 의미를 배우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한편 대한민국 건국을 주제로 한 별도의 강연회도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이어진다. 오는 8월 20일 오전 11시 라구나 우즈 빌리지의 클럽하우스 7(Clubhouse 7)에서 열리는 강연회에는 황준석 목사가 강사로 나서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에 대해 설명한다.

주최 측은 “해방과 건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에 동포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디 한 기자

JESUS
AWAKENING
PRAYER CONFERENCE

Jama
영어권 기도 컨퍼런스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부, EM 회중, 다민족,
함께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 원하는 기도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강사

BOB SORGE

BOAZ PARK

JOSHUA M. KANG

JOSHUA I. KANG

JAY MORGAN

SHINE KIM

SAMUEL HAN

MIKE KIM

일시

2026년 9월 3일(목) 7 - 9 PM
4일(금) 9 AM - 9 PM
5일(토) 9 AM - 5 PM

장소

은혜한인교회(Grace Church Fullerton)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lifornia

등록비

\$75 (식사(금-점심/저녁과 토-점심식사) 포함)
대학생과 고등학생 -참가비 무료, 식사 \$10/meal

안내 / 온라인 등록

903) 804-4016
WWW.JAMAGLOBAL.ORG/JAPC

찬양인도
LEVISTANCE

JESUS AWAKENING PRAYER CONFERENCE SEPTEMBER 3 (THU)-5 (SAT), 2026 | GRACE CHURCH FULLERTON, CA WWW.JAMAGLOBAL.ORG/JAPC

『하박국과 그의 하나님』 출판 감사예배

강태광 목사(월드쉐어USA 대표)가 설교집 『하박국과 그의 하나님』을 펴냈다. 이를 기념하는 출판 감사예배가 지난 8월 9일 주일 오후 5시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1부 감사예배, 2부 북콘서트, 3부 작은 음악회 순으로 진행됐다.

1부 감사예배는 김영구 목사의 인도로, 이윤후 목사와 이보윤 사모의 찬양으로 시작되었다. 박종인 장로(미주 평안교회)가 기도하고, CBS 여성합창단의 특별 찬양 후 송정명 목사(미주 성시화 대표)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송 목사는 하박국 선지자가 시대의 부조리와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을 보며 하나님께 항의하듯 호소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어려움과 고통을 감추기보다 하나님께 표출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자신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경험을 나누었다. 그 경험 이후 환우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하게 됐고, 목회 현장에서 그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또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이후 장례를 집례할 때 유가족들의 이별의 아픔을 바라보는 마음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하박국 2장 4절의 “오직 의



오정택 목사, 민경엽 목사, 양경선 목사, 양국민 목사, 이견창 목사, 김에스라 목사, 한남옥 권사가 패널로 나서 서평 콘서트가 진행됐다. © 기독교일보

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강조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처럼, 상황과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했다.

2부 북콘서트는 축사와 성경퀴즈 대회, 서평 콘서트로 진행된다. 샘신 목사(한기총 지회장), 박병열 목사(미주평안교회 담임), 윤피터 장로(한미 재향군인회 이사장)이 축사를 전하고 박세현 목사가 ‘내가 만난 강태광 목사’라는 제목의

로 저자를 소개했다. 이어서 김에스라 목사, 이견창 목사, 양경선 목사, 홍충수 목사, 양국민 목사, 오정택 목사, 한남옥 권사가 패널로 나서 서평 콘서트가 진행됐다.

양경선 목사는, “군목 출신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곳곳에 쓰여 있다.”고 서평을 전했다.

민경엽 목사는, ‘하박국과 그의 하나님’에 대해, “시의성, 명확성, 인문학적 접근이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김에스라 목사는 ‘나도 이 저자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남옥 권사는 투병 중인 남편이 이 책을 통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손길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며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는 구절을 통해 남편이 평안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오정택 목사는, “하박국 선지자는 목

사를 풀어주는 선지자”였으며, “AI 시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영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충수 목사(나성한미교회)는 저자가 하박국 선지자의 인간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전했다.

이견창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쉽게 해주지 않고 실력을 키워주신다’를 인상 깊었던 문장으로 꼽았으며, 김섭 장로(은혜한인교회 행정실장)는 하박국서를 묵상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깨달았으며, 이라크를 향한 선교를 결심하게 됐다고 나눴다.

양국민 목사는 “진정한 부흥은

상황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3부 작은 음악회에서는 CBS 여성합창단, 김정호 목사(가스펠교회), 월드쉐어 여성선교합창단, 이윤후 목사, 양경선 목사가 찬양으로 ‘하박국과 그의 하나님’의 출간을 축하했다.

강태광 목사는 아이티 남부 섬 프티 트루 드니프(Petit Trou de Nippes)의 교회 건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나눴다. 또 월드쉐어의 멘토링 사역인 ‘바나바 사역’의 일환으로, 9월 1일 송정명 목사를 초청해 사역의 이해와 통찰을 나눌 계획에 대해 나눴다.

이날 행사는 김현석 목사(헌팅턴 비치 교회)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강태광 목사는 부산에서 성장했다. 군종목사로 입대해 20년간 상무팀(국군체육부대) 군종목사, 미8군 한국문(KATUSA) 군종목사, 백마부대 군종참모, 행정학교 군종학교관으로 사역했다.

〈기독교 문학 산책〉, 〈신약 인문학〉,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등 기독교 인문학 저서 11권과 시집 〈온 세상에 그대 얼굴이 숨어 있다〉외 2편, 설교집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 독자들과 만나고 있다.

주디 한 기자

구원 받았는데, 왜 세상의 것 가지려 아등바등하는가?

→ 1면 기사 <조지훈 목사>에 이어서

조 목사는 “지팡이를 던질 때 어떤 믿음이 있었겠나. 나는 주님의 통로일 뿐이다. 나는 주권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나는 통로일 뿐이다”며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이다. 가로막는 것은 나의 생각”이라고 했다.

또 “청중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해야 한다”며 “내 사업인가, 하나님의 사업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의 사업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7년 성령 체험을 하고 그로부터 3개월 동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제가 얼마나 많이 축

사를 했는지 제 자신이 되마사인지 착각할 정도였다”며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나면, 3개월 만에 사람이 많아지고 옆에 사무실을 얻었다. 그리고 술집을 개조해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바로의 술객들의 지팡이와 모세의 지팡이를 설명하며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조 목사는 “세상도 만만치 않다. 영적인 세상이 있는데, 그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든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이 뱀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뱀이 더 강하다. 더 강한 뱀이 약한 뱀을 먹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목사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100% 인간이었지만 100% 하나님이시다.”이라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 세상의 기준에 평가받습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아등바등 삽니까?”라며 “진짜 이기려면 세상에 없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목사는 요한복음 14장 12~14절을 말하며 “너는 나보다 큰일을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

그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

리 권세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영광을 받으시기 하려 함이라”며 “세상의 왕들이 굴복할 만한 기적들이 나타나야 한다. 진짜 다니엘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도전했다.

조 목사는 세상의 권세자들도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세상 절대 권세자들은 자기가 못 갖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다. 권세자들이 자기에게 없는 곳에 가서 기댄다. 무당에게 가서 기댄다”며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져야 하는 것. 그게 예수의 능력이 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세상은 복음의 능력을 하찮게 여긴다.”며 “자기 경험도 못 이기는 것이 그게 복음인가? 이성적인 생각도 뛰어넘지 못하면 그게 복음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복음이 다 지식적인 것에 갇혀 있다”며 “복음은 능력이고 실재다”라고 강조했다.

또 “복음을 이해하는 수준이 너무 얕다. 현재 젊은이들의 정말 문제는 복음이 인본주의화되어서 세상 이념보다 못하다는 것”이라며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복음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홀리스 사역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도내이선에 주세요.)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40년 보험 전문인

JAY PARK이 자신있게 소개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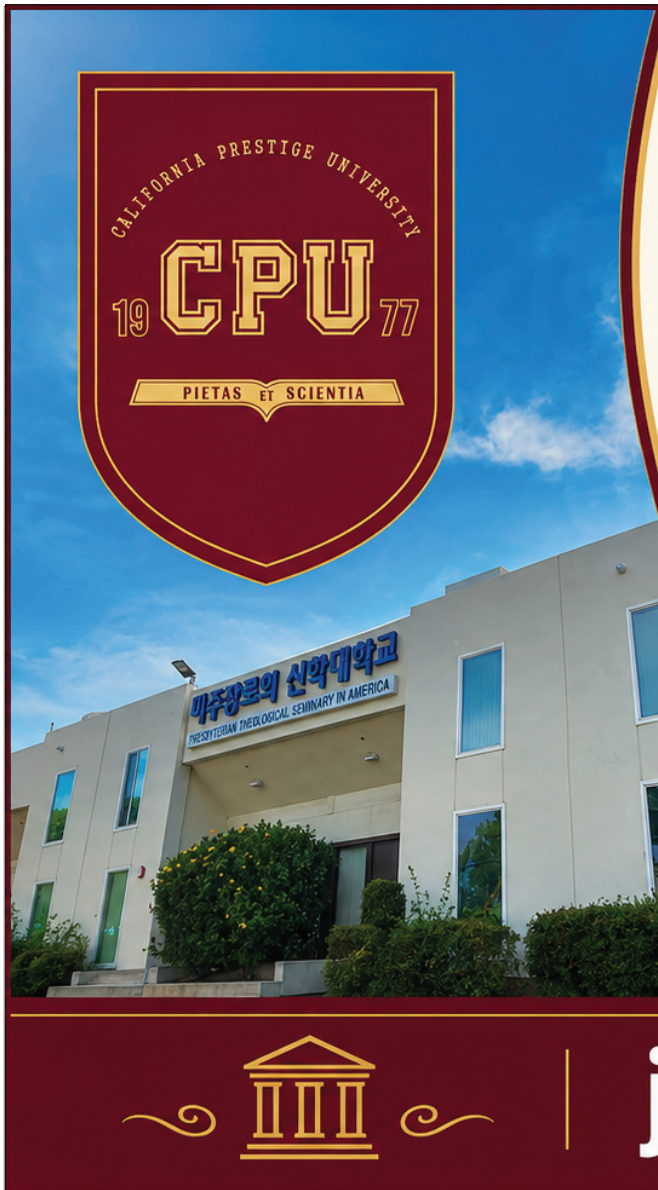
자동차, 사업체, 메디케어 보험

CA ins. Lic#OC84280

(213) 380-9801

2975 Wilshire Blvd., Suite 506
Los Angeles, CA 90010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직원 모집

함께 일하실 분을 찾습니다

- 업무**
간단한 사무 업무 및 전화 상담·세일즈
- 근무시간 (선택 가능)**
월-금요일 오전 9시-낮 12시
또는
월·수·금요일 오전 9시-오후 2시
- 지원방법**
연락처와 간단한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jhchung@cpu.edu

 **센터메디컬그룹**

제 5 회 시니어

골프대회



— 참가비 —
\$200
만 64세 이상 시니어



전원혜택

총 **\$10,000** 상당의
푸짐한 상품을
참가자 전원과 함께 나눕니다!



이웃돕기 성금 기부

참가자 이름으로 **100%**
전액 이웃돕기성금으로 기부

2026년 **11월 2일(월)** 오전 **10시** 샷건
LOS COYOTES COUNTRY CLUB
888 Los Coyotes Dr, Buena Park, CA 90621



센터메디컬그룹 문의
888 – 847 – 3098

문의시간
9AM ~ 5PM

‘여성 강도사’ 무산?... 장로교 총회 한 달여 앞으로

국내 주요 장로교단들의 정기총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도 임원 선거를 비롯해 목회자 정년과 여성 안수 등 관련 논의에 교계 이목이 집중될 예정이다.

먼저 예정 합동(총회장 장봉생)은 오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제111회 정기총회를 갖는다.

주요 임원 선거 후보는 △총회장 정영교 목사(남경기노회 양문교회)를 비롯해 △목사부총회장 전승덕 목사(서대구노회 설화교회), 송기섭 목사(동대구노회 동막교회) △장로부총회장 손원재 장로(산서노회 울산사랑의교회), 지동빈 장로(서울한동노회 강변교회)다.

또 △서기 유병희 목사(황서노회 예우림교회) △부서기 박기준 목사(대경노회 목자교회) △회록서기 이도형 목사(경북노회 도계중앙교회) △부회록서기 김광철 목사(경일노회 새벽교회), 육수복 목사(강북노회 전곡중앙교회) △회계 안수연 장로(중경기노회 양의문교회) △부회계 이시홍 장로(대구동노회 명일교회)다.



지난해 예정 합동 제110회 정기총회가 진행되던 모습.

주요 현의안은 △여성 강도사 제도 관련 △총회 차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 발표 △총회 여성사역자 관련 위원회의 폐지 △농어촌 목회자 정년 연장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정기총회에서 논란이 된 ‘여성 안수’를 두고 이번 총회에서도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 앞서 ‘여성 강도사’ 관련 헌법 개정안이 지난해 제110회 총회에서 가결돼 올해 노회 수의를 거쳤지만 상당수 노회들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회를 통과한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전국 165개 노회 중 과반의 참여와, 투표에 참여한 노회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밖에도 올해 총회에서는 △주일 성수 수호 및 교회 화평을 위한 ‘주일 단제집회 및 시위금지’ 시행 세칙 제정 △당회조직을 위한 세례교인 인원을 25명에서 20명으로 하향 조정 △교회 신설을 위한 교인 인원을 15명에서 12명으로 하

향 조정 등의 현의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예정 통합(총회장 정훈 목사)은 오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도림교회(담임 정명철 목사)에서 제111회 정기총회를 갖는다.

주요 임원 선거 후보는 △총회장 권위영 목사(서울노회 서울숲교회) △목사부총회장 황순환 목사(충청노회 서원경교회), 김한호 목사(강원노회 춘천동부교회), 전세광 목사(평북노회 세상의빛교회) △장로부총회장 박기상 장로(영등포노회 시온성교회)다.

통합 측은 합동 측과 달리 총회장과 부총회장을 제외한 서기 등 다른 임원들은 별도로 선거를 치르지 않고 신임 총회장이 지명해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결정한다.

주요 현의안은 △은퇴목사 처우 개선 △이북노회 별도 권역 분리 △목회자 정년 △노회 폐회 중 부목사 청빙 △항존직 시무 연한 조정 등이 있다.

특히 현행 교단 규칙에 따르면 정기노회가 폐회한 뒤에는 부목사 청빙과 같은 청원 사항을 처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정치부는 현행 헌법의 노회 폐회 중 청빙 절차에 ‘부목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현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정치부는 ‘항존직의 시무 연한’을 조정하는 현의안도 상정할 예정이다. 교단 측에 따르면 현행 헌법은 항존직의 시무 연한을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70세가 끝나는 날까지’로 변경하는 안이다. 출생 시기에 따라 은퇴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행 규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

총회 측은 이를 통해 만 나이 기준 적용의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항존직의 일시적인 동시 은퇴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역 공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예정 백석(총회장 김동기 목사)은 오는 9월 15일부터 사흘간 천안 백석대학교 제49회 정기총회를, 예정 고신(총회장 최성은 목사)은 오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제76회 정기총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규모 7.4 강진 덮친 콜롬비아... 교회들 피해 상황 파악 나서

콜롬비아를 강타한 규모 7.4의 강진으로 곳곳에서 건물 피해와 대피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지 복음주의 교회들이 소속 교회와 성도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콜롬비아복음주의연합(CEDECOL)은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발생한 지진 이후 피해 지역에 위치한 회원 교회 및 지역사회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CEDECOL의 안드레아 핀토(Andrea Pinto) 이사 보좌관은 “회원들과 교회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현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지역을 살펴보고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통신이 두절되면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커피 생산지대(Coffee Region)와 초코(Chocó) 지역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핀토는 “현재 해당 지역과 통신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CEDECOL이 피해 상황을 주시

하고 있는 지역은 칼리(Cali), 마니살레스(Manizales), 커피 생산지대, 키브도(Quibdó) 등이다. 특히 초코 지역의 회원들과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CEDECOL이 접수한 초기 보고에 따르면 커피 생산지대를 중심으로 건물에 구조적 손상이 발생했으며, 일부 주민들은 건물에서 긴급 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핀토는 “커피 생산지대에서는 건물에 균열이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으며, 위험 때문에 다시 건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머물 수 있도록 임시 캠프를 마련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가정은 이번 지진으로 집안의 소지품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는 초기 보고에 해당하며, CEDECOL은 피해 지역의 교회 및 성도들과 계속 연락하며 정확한 피해 규모와 지역사회들의 필요를 확인하고 있다.

메데인에서는 형제교회(Church of the Brethren) 마르셀로 페레리(Marcelo Ferreri) 목사가 자신의 가족과 교회 성도들이 모두 안전하

다고 밝혔다. 페레리 목사는 메데인에서도 간헐적인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지진에 익숙하지만, 이번 지진은 흔들림이 지속된 시간이 평소와 크게 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곳에서는 가끔 건물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오랫동안 흔들렸다”며 “체감상 거의 2분 가까이 지속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장시간 이어진 진동으로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지만, 페레리 목사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건물들이 비교적 잘 견뎌냈다고 전했다. 그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피해가 심하지 않았다”며 “주택들도 상당히 잘 견뎌냈다”고 밝혔다.

페레리 목사는 왓츠앱 단체대화방을 통해 교인들의 상황을 확인했으며, 초기 보고를 통해 대부분의 성도들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상황은

달랐다. 특히 커피 생산지대에서 피해가 집중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그 지역에서는 건물이 무너지고 주택이 붕괴됐으며, 사망자 대부분도 그곳에서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페레리 목사는 지진을 경험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하는 한편, 이번 재난을 통해 신앙적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우리 가족과 교회가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매달리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페레리 목사의 가족과 형제 교회는 모두 안전한 상태이며, 피해가 큰 지역의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 발레델카우카주 툴루아

(Tuluá)에서도 강한 진동으로 주민들이 큰 공포를 경험했다.

현지 소프트웨어 기업 소프트웨어 레드(Software Redil)의 상업 매니저인 브라이언 에르난데스(Brahian Hernández)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툴루아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진 당시 발생한 소리를 강하게 기억했다. 에르난데스는 “땅이 깊게 울부짖는 듯한 소리와 강한 진동으로 나무들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다.

현지 상황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 지역의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로부터 추가적인 피해 보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경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재성, 김중언, 김한호, 류종길, 민중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모, 구봉주, 국윤권, 김중규, 류응렬, 박은성, 박일서, 오영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중, 써니킴

■ 발행인 :

이인규

■ 이사장 :

폴킴

■ 편집국장 :

맹창현

■ 고문변호사 :

정찬용

■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크랜트, 시애틀, 텍사스

■ 대표전화 :

(213) 739 - 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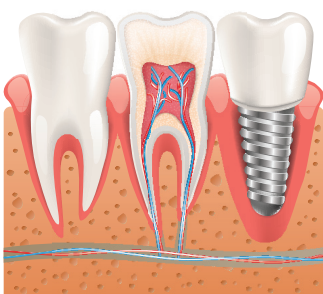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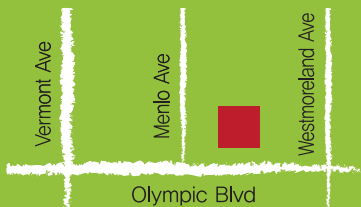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자신보다

가족 걱정을 늘 먼저 하는 당신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SMG는 진료 이전에
당신의 삶을 생각합니다.
수많은 의사와 병원,
보험 네트워크를 연결한 이유도
결국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한 사람,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30년동안 당신을 지켜온 SMG 기록

5,500명의 의료진 | 폭넓은 병원 및 보험사 | 우수 의료 제공자



800.611.9862
SMG 카카오톡채널에 방문하세요!

SMG
서울메디칼그룹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광고에서 사용된 지표는 SMG가 2025년에 남가주 지역의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 네트워크 규모에 대해 조사한 내부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과 함께 독립된 의사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혜택과 네트워크 규모는 각각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헬스 플랜과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따라 제한, 제외, 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메디칼그룹 800-611-9862로 문의하십시오.

한국 복음의 시작에는 미국보다 먼저 일본이 있었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출발점에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 후나바시교회 담임이자 재일대한기독교교회(KCCJ) 제58회기 총회장인 장경태 목사는 한국 복음의 시작에서 일본을 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선교의 뿌리는 서구에 있다고 흔히 인식되어 왔는데 여기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것이다.

저스트 지저스(JUST JESUS, 대표 브라이언박 목사)는 오는 9월 1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다가요 in 도쿄’ 예배를 앞두고 6일, 장목사를 초청해 일본 선교의 역사와 의미를 조명하는 특집 영상 콘텐츠를 촬영했다.

장 목사는 이날 브라이언박 목사
와 ‘일본’을 주제로 대담하며 일
본 선교의 역사와 현지 사역의 비
전 등을 소개했다. 특히 한국 복음
의 초기 역사와 이수정 선생의 역할
을 비롯해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역
사와 사명, 일본 교회가 한국교회에
기대하는 ‘존중의 선교’, 한·일 교회
의 복음 연합 비전 등을 언급해 눈
길을 끌었다.

장 목사에 따르면 1880년 일본 사절단원으로 건너간 이수정 선생은 처음에는 농학을 공부하려 했지만 복음을 접한 후 그리스도인이 되어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미국교회에 편지를 썼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에 가기로 결단했다는 것이다. 이후 두 선교사는 일본 요코하마로 가서 당시 이수정 선생이 번역한 마가복음 성경을 들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장인 장경태 목사(왼쪽)와 저스트 지저스 대표 브라이언박 목사가 일본 선교를 주제로 대화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고 마침내 조선에 들어갔다고 장 목사는 설명했다.

“한국 복음의 시작에 그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는지 정말 몰랐다”는 박 목사의 말에 장 목사는 “이수정 선생은 이미 그가 번역한 마가복음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손에 들려주고서 그들을 제물로 보냈던 것”이라며 “선교사가 선교지의 언어로 된 성경을 들고 입국한 것은 아마도 전례가 없던 일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브라이언박 목사는 “한국 복음의 시작점이 미국인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일본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우리가 일본에게 복음의 빛을 진 것”이라고 했다.

장 목사는 한국교회가 일본을 선교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장 목사는 “일본보다 한국이 선교로 앞서가지만, 일본교회는 한국교회가 어떤 지원을 베풀기보다는 먼저 그들을 존중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한국교회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에 대해 일본교회는 늘 깊이 감사하고 도전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의 문화와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식 대형 프로그램이나 일방적인 성과주의를 주입하려는 모습에 대해서는 속으로 깊은 우려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일본교회를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일본 특유의 ‘메이와쿠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했다. 남에게 폐를 끼치려 하지 않는

문화다. 장 목사는 “일본인들은 사생활의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익숙한 전도방식으로 불쑥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일본선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한국교회들을 먼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현지 한국교회들은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천천히 복음으로 다가가고 있다”며 “일본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주시고, 현지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장 목사는 한일 관계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갈등의 관계들이 나온다. 하나님은 그 모든 갈등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놀

라운 섬표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다”며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고 계신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은 한일교류를 더 원하고 젊은이들은 서로의 국가를 너무나 좋아한다. 일본에 있는 한인 교회들에도 수많은 일본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한국을 좋아해서 오는 것”이라며 “이처럼 한일 관계의 갈등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저스트 지저스는 오는 9월 19일 일본 도쿄 아사쿠사 공회당에서 '다가요 in 도쿄' 예배를 드린다. 저스트 지저스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과 일본인 성도, 선교사, 현지 교회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스트 지저스는 “지역교회를 대신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지역교회를 세우고 연결하는 사역을 지향한다”며 “‘다가요’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헌금은 현지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라이언박 목사는 “일본에서 처음 예배를 드린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그곳에서 모은 헌금은 경비 등 다른 용도로는 전혀 쓰지 않고 전액 현지 교회로 돌려보냈다”며 “이런 과정에서 한국교회 일본 선교의 진정성을 의심했던 현지인들의 마음문이 조금씩 열리는 걸 눈길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접견

세계로교회 손헌보 목사와 가족(이영례 사모, 장남 손영광, 차남 손찬송)은 8월 7일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들은 미국 교계의 초청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미국 주요 교회를 방문하고, 미국 정부 인사 및 정치인들과 면담 일정을 진행 중이다.

손 목사는 캘리포니아·텍사스·테네시·매릴랜드·델라웨어·조지아 주 교회들을 순회 방문 중이며, 갈보리채플 치노힐스(캘리포니아, 담임 잭 힌스 목사), 월드아웃리치 교회(테네시, 담임 알렌 잭슨 목사), 프리 채플(조지아, 담임 제테젠 프



손현보 목사와 가족이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접견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악관

랭클린 목사), 빈티지 교회(텍사스, 담임 스티븐 마틴 목사) 등을 방문 하고 있다.

순방 기간 중 손목사는 미국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포함한 6여개 팟캐스트에 출연했으며, 워싱턴 D.C.에서는 연방 상원의원실을 비롯한 여러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위싱턴에서의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손 목사 가정은 롭 맥코이(Rob McCoy) 목사와 함께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환담했으며, 폴라 화이트(Paula White) 목사가 이끄는 백악관 신앙 사무국도 방문했다.

손 목사 가족은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오는 8월 14일 귀국할 예
정이다.

김진영 기자



TRUSTED SCHOOL IN TOWN



[LEARN MORE](#)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CONTACT US!
(213) 487-5437
[ncahusgies.org](https://www.ncahusgies.org)

캐나다군, 공적 행사서 ‘신·종교’ 언급 금지… 교계 거센 반발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캐나다 군대가 의무 참석이 요구되는 공적 행사에서 신이나 특정 종교에 대한 언급을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지침을 시행하면서 현지 기독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8월 5일 보도했다.

캐나다 국방부는 지난 7월 26일 군목을 포함한 모든 군인이 공적 및 반공적 행사에서 특정 신앙을 나타내는 언어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군대 환경에서의 영적 성찰’ 지침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영령 기념일 행사나 지휘관 교체식, 졸업식 등 군인들의 참석이 의무화된 공식 모임에서는 신성한 존재에 대한 언급이나 전통적인 기도가 원천 차단된다. 대중 연설이나 발언을 할 때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존의 기도는 종교색이 없는 중립적인 영적 성찰의 시간으로 전면 대체된다.

다만 이번 지침이 군목의 모든 종교 활동을 막는 것은 아니다. 군목이 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종교 예배를 인도하거나, 군 장례식에서 기도를 올리는 행위, 군인과 가족에게 묵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활동은 기존처럼 허용된다.

캐나다 국방부 측은 일부 비신자나 무신론자 군인들이 공적 행사에서의 종교적 언급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낀다는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가 차원의 포용성과 철저한 종교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캐나다 복음주의 연맹(EFC)은 이번 지침이 종교의 다원성을 무시하고 편향한 세속주의를 강요하는 처사라며 즉각적인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개종 금지법 시행… 기독교계 강력 반발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종교 개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새로운 형태의 개종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현지 기독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8월 6일 보도했다. 인도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일상적인 교리 교육이나 자선 활동, 기도 모임조차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종교 탄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मुंबई 가톨릭 대교구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이 마하라슈트라주 내 가톨릭 교회의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활동을 처벌할 수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전인도 가톨릭 연맹의 존 다얄 대변인 역시 인도의 13개 주가 시민의 양심을 정부가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강압적인 종교 강요는 이미 인도에서 범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선교와 자선 활동 자체를 범죄로 취급하고 무죄 입증 책임을 피고발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인도 복음주의 연맹(EFI)의 비자예시랄 사무총장은 마하라슈트라주의 개종 금지법이 개인의 양심적 결정을 대중의 이의 제기와 자의적인 경찰 조사가 수반되는 행정 절차로 변질시켰다고 꼬집었다. 특히 불법적인 ‘유혹’의 범주에 신성한 치유나 신앙적 교육까지 포함시키면서,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의 증언과 봉사 활동이 언제든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협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CDI는 마하라슈트라주를 비롯한 인도 내 다수의 주에서 시행 중인 이 개종 금지법은 강압, 기만, 무력, 허위 진술, 부당한 영향력, 사기 등을 통한 모든 개종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법안이 명시한 ‘유혹’의 의미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이다. 선물 제공, 취업 알선, 무료 교육 제공, 더 나은 생활 방식의 약속 등 자선 단체의 통상적인 활동도 불법적인 개종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법안의 행정 절차 또한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개종을 원하는 자는 60일 전에 지역 행정관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하며, 당국은 이를 30일 동안 대중에 공개해 이의 제기를 받는다. 이후 경찰 조사를 거쳐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pixabay

브루스 클레멘저 캐나다 복음주의 연맹 수석 대사는 이번 정책이 신의 존재를 믿는 이들의 관점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어떠한 종교적 언어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세계관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는 정부의 전제는 잘못됐으며, 이는 중립성이라는 명분 아래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단일 신념 체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측은 국가 중립성에 관한 캐나다 대법원의 과거 판결을 정책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연맹 측은 대법원 역시 완벽한 의미의 절대적 중립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캐나다 복음주의 연맹은 이번 규제가 군목들의 사역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캐나다 군대 내 존재하는 신앙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캐나다 정부가 해당 금지 지침을 즉각 폐기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해 국민의 다양한 세계관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연 기자



©pixabay

기소 처분이 내려진다. 개종이 완료된 후에도 21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종 자체가 무효화되며,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 누구나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

처벌 수위 역시 가혹하다. 일반적인 위반의 경우 최고 7년의 징역형과 10만 루피(약 1052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미성년자, 여성, 지정 카스트(SC)나 지정 부족(ST) 등 소외 계층을 개종시킨 것으로 판명될 경우 벌금은 50만 루피(약 5262달러)로 늘어나며, 재범 시에는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 사실이 적발된 교회나 학교, 자선 단체는 등록이 취소되고 정부 지원금이 중단된다.

CDI는 이러한 개종 금지법이 마하라슈트라주만의 단독적인 움직임이 아니라고 밝혔다. 1967년 오디샤주를 시작으로 최근 차티스가르주에 이르기까지 인도 내 총 13개 주가 유사한 법안을 채택했다. 전문가들과 종교계는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 집권 이후 인도 국민당(BJP)이 통치하는 주들을 중심으로 힌두 민족주의가 확산하면서 소수 종교를 억압하기 위한 조직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정식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도 헌법 입안자의 손자이자 소외 계층을 대변하는 정당 창립자인 프라카시 암페드카르는 해당 법안이 헌법적 가치를 위반하고 소수 집단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뭄바이 고등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또한 2026년 보고서에서 인도의 종교적 자유 악화를 지적하며 미국 정부에 인도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최다니엘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어린이성경공부 오후 1:30
백송찬양대 주일 오후 1:15

평일 영혼의심예배
- 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부기도회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so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1부: 8:30 am
주일예배 2부: 11:00 am
교육부서: 11:00 am

주일 3부: 2:00 pm (영어편)
새벽예배: 화-토 (6:00 am)
수요예배: 7:00 pm

박병열 담임목사

미주평안교회
"은혜로 걸아온 50년, 비전으로 걸아갈 NEXT 50년" (시 78:4)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 (213) 381-2202 www.mijoopeace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년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 1부예배
2부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 (월-토)

오전 11:00
오후 2:00
오후 7:00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20 James M Wood Blvd, LA, CA 90015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일에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세울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등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 소년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요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주요종부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세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주일 저녁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절절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수요/금요일에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요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일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토요일새벽예배
E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 6:30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주일2부예배
새벽기도 (화-금)
(토) 오전 6:30

오전 8:00
오전 10:30
오전 5:30
오전 6:3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troll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주일학교
수요성경공부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1:00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2F), L A, CA 90019
T. (323)610-6989, www.woorigachurch.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종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차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시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기독일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월-토) 오후 6:00

가명훈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F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매간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창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대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토요일 오전 9:30(목)
제자상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진교인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아침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장장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유영담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금요성령집회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성령집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최원일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유영담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금요성령집회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성령집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최원일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나이지리아군, 기독교인 학살 용의자 체포

▲지난 7월 26일 나이지리아 카두나주 카우루 카운티 나리돈 마을에서 발생한 기독교인 학살 사건 희생자들을 위한 장례식. ©ICC

나이지리아군이 최근 카두나주에서 발생한 기독교인 집단 학살 사건과 관련해 핵심 용의자를 체포했다. 희생자들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온 첫 번째 수사 성과다. 국제 종교 자유 단체들은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기독교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이하 ICC)에 따르면, 나이지리아군은 최근 “카두나주 쿠루민 카레(Kurmin Kare) 지역을 공격해 기독교인 최소 30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48세 플라니족 남성 바바 가나루(Baba Ganaru)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그가 이번 공격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국제 종교 자유 단체들이 이번 체포를 주목하는 이유는,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겨냥한 대규모 공격이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ICC는 성명을 통해 “이번 체포는 희생자 가족들에게 중요한 진전이지만, 정의는 체포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격을 지시하거나 지원한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면책’(impunity) 문화가 폭력의 악순환을 키우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한다. 공격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무장 세력은 더욱 대담하게 기독교 마을과 교회,

농촌 공동체를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카두나주는 플레토주, 베누에주와 함께 나이지리아 중부 ‘미들벨트’(Middle Belt) 지역에 속한다. 이곳은 북부 이슬람권과 남부 기독교권이 맞닿은 지역으로, 오랫동안 토지 이용과 자원 경쟁, 민족 갈등, 종교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폭력이 반복돼 왔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충돌을 단순한 농경민과 목축민 간 분쟁으로만 보지 않는다. 국제 종교 자유 단체들은 기독교 공동체가 반복적으로 공격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교회와 예배당, 농촌 마을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 자유 침해의 성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최근 수년간 카두나주와 플레토주, 베누에주에서는 예배 중인 교회가 공격받거나 목회자와 성도들이 납치·살해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배후 세력까지 수사가 확대되는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는지, 그리고 유사한 공격을 막기 위한 정부의 안전 대책이 마련되는지가 나이지리아의 종교 자유 현실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거주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인 동시에 기독교인을 겨냥한 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로도 꼽힌다.

강혜진 기자

케냐 선교 떠난 네 아이, 엄마 살모넬라균 감염으로 사망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버지니아주의 한 교회 소속으로 아프리카 케냐 단기 선교를 떠났던 네 아이의 어머니가 급성 살모넬라균 감염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8월 3일 보도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출신의 아이라 가르시아(36)는 지난달 24일 케냐 나이로비의 한 병원에서 살모넬라균 감염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유가족에 따르면 고인은 감염 위험을 높이는 유전성 혈액 질환인 겸상 적혈구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이 기저질환이 병세를 급격히 악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가르시아는 지난 6월 30일 가족 및 소속 교회 성도들과 함께 케냐 현지 고아원인 ‘시온 패밀리’를 지원하기 위해 아프리카 기독교 단기 선교 길에 올랐다. 유가족 측은 가르시아가 케냐 체류 중 오염된 얼음을 섭취한 뒤 살모넬라균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초기 장염 증상으로 여겨졌던 감염은 신장과 간, 혈류로 빠르게 확산됐다. 상태가 위중해진 가르시아는 나이로비에 위치한 아가 칸 대학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여러 차례의 수혈과 투석 등 집중 치료를 받았다. 한때 산소 호흡기를 떼고 자가 호흡을 시작하는 등 병세가 호전되는 듯했으나 7월 23일 밤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다음 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가르시아의 어머니 파트리샤 가르시아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살모넬라균 감염이 순식간에 확산되어 곧바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했다고 당시의 급

아이라 가르시아의 생전 모습. 그는 고아들을 위한 보육시설인 ‘시온 패밀리’를 지원하기 위해 케냐로 떠났다가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었다. ©_jamaylagarcia IG

박한 상황을 전했다.

당초 유가족은 가르시아의 상태가 일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하다는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미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의료용 전세기 비용 모금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러나 고인의 병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면서 의료 후송 시도는 끝내 무산됐다. 가르시아 사망 이후 가족들의 모금 목적은 의료 이송에서 고인의 시신 본국 운구 및 체납된 현지 의료비 충당으로 전환됐다.

사망한 가르시아에게는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네 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미국 기독교 선교계와 지역 사회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유가족과 지인들은 고인이 투병 중에도 굳건한 신앙을 유지했으며 평소 타인을 돕는 일에 헌신적인 기독교인이었다고 추모했다. 현재 유가족은 케냐 고아원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하다 숨진 가르시아의 시신을 미국 버지니아로 운구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시신이 도착하는 대로 현지에서 공식 추모 예배를 거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美 베델교회, 논란 확산된 ‘패션 번역성경’ 판매 잠정 중단



애크 스미스-코너(우)와 그의 법률 고문인 제레미아 이구누볼레(좌). ©ADF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딩에 위치한 베델교회(Bethel Church)가 최근 학문적 배경과 번역 과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패션 번역(The Passion Translation·TPT)’ 성경의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베델교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TPT와 관련해 제기된 우려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현재 전문적인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관련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명확성이 확보될 때까지 판매 중단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회는 또 TPT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직원, 교회 외부 자문위원 등 교회와 연관된 다양한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교회의 신뢰성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성 강화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델교회는 그동안 담임목사 빌 존슨(Bill Johnson)의 서문이 포함된 TPT 신약 특별판을 판매해 왔다. 해당 특별판을 소개하는 웹페이지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최근 구매 링크는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TPT 공식 홈페이지에는 당시까지 존슨 목사의 추천 영상도 게시돼 있었다.

TPT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다른 교회와 성경 플랫폼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앞서 성경 읽기 앱 ‘라이프 바이블(Life Bible)’은 서비스에서 TPT를 제외했다. 이 앱은 약 150만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저명한 카리스마 계열 성경 교사 데이먼 톰슨(Damon Thompson)도 최근 TPT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엘라베마주 모빌의 교회 ‘더 홈스테드(The Homestead)’를 이끌고 있는 톰슨은 자신의 사역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과 영상을 통해 TPT의 학문적 기반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밝혔다.

톰슨은 “패션 번역이 세워진 학문적

기반이 당초 소개된 것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번역 작업과 관련된 학력 및 자격이 잘못 제시됐고, 일부 자료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사용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 역시 수년간 TPT를 사용했으며 가족과 사역을 준비하는 학생들, 교회 성도들에게 TPT를 추천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자신이 아람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TPT의 아람어 구절 번역을 신뢰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해당 번역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톰슨은 과거 TPT를 신뢰하고 이를 통해 전한 내용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며 추종자들에게 사과하고, 당시에는 해당 내용이 정확하다고 믿었다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논란은 유튜브 채널 ‘마이너 프로페츠(Minor Prophets)’가 공개한 조사 영상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성경 교사 마이크 윈저(Mike Winger)도 조사에 참여했다. 이들은 TPT의 주 번역자인 브라이언 시먼스(Brian Simmons)가 자신의 학문적 배경과 번역가로서의 자격을 실제보다 과장해 소개했으며, TPT의 일부 내용이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다른 자료에서 가져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윈저는 수년간 TPT와 시먼스를 비판해 왔다. 그는 TPT가 성경 원어가 뒷받침하지 않는 내용과 해석을 본문에 추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윈저는 2023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에 올린 글에서 다양한 기독교 전통에 속한 학자들이 TPT를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성경 번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TPT는 2017년 처음 출간된 이후 미국의 오순절 및 카리스마 교회를 중심으로 상당한 독자를 확보했다. TPT 공식 홈페이지는 이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사본을 사용해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미경 기자

아르메니아 101m 세계 최대 예수상 건립 추진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인 아르메니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101m 규모의 거대 예수 그리스도 동상 건립이 추진된다고 8월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아르메니아의 유력 사업가이자 정치인인 가기크 차루키안은 최근 영국 가디언지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조국에 세계 최대 규모의 예수상을 세울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기독교가 아르메니아의 새로운 국가 브랜드가 될 것이라며 이번엔 건립되는 조각상이 아르메니아를 전 세계에 알리는 명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발 2500m 하티스 산 정상에 세계 최대 예수상 건립

이번엔 기획된 거대 예수상은 전체 높이 101m에 달하는 초대형 구조물이다. 이는 받침대를 포함해 총 높이 38m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구세주 그리스도상을 크게 웃도는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이 예수상은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서 동쪽으로 약 25km 떨어진 해발 고도 2500m의 하티스 산 정상에 세워진다. 지난 2022년부터 산발적으로 기초 제작 작업이 진행되어 온 이 조각상은 조만간 산 정상으로 운반되어 본격적인 조립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리적 특성상 조각상이 완공되면 수도 예

레반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르메니아 기독교 랜드마크 조성 및 차루키안의 정치적 행보

차루키안은 아르메니아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라는 역사적 사실을 세계 최대 예수상 건립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는 인터뷰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가 세상에서 가장 큰 예수상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 최대 예수상 프로젝트와 더불어 초대형 규모의 노아의 방주 건립 프로젝트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거대 건축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차루키안은 운동선수 출신으로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 도박과 주류 및 광산업 등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신흥 재벌이다. 그는 최근 치러진 아르메니아 총선에 출마했으나 4%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정치적 입지 확보에는 고전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예수상과 노아의 방주 건립을 신성한 프로젝트로 규정하며 뚜렷한 개인적 포부를 드러냈다. 차루키안은 두 가지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깊이 새기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 사후에도 전 세계가 자신을 기억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니엘 최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박종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대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예수의 제자로 성숙해지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 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주일 1부 8:00am
주일 2부 9:30am (각 교육부 예배)
주일 3부 11:20am (각 교육부 예배)
영아영아부 1:30pm / 영아(학부 2m / 수요경배와찬양 (수) 7:30am
새벽예배 평일(월-금) 5:30am, (토) 6am
EM(DSCP) 1부 9:30am / 2부 11:00am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 교회를 교회되게 ·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714) 680-9556 www.dongshinchurch.com

주일 예배 (KM)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주일 예배 (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3-5) 오전 10:3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623@gmail.com

주일예배 1부: 8:00 am 새벽예배: 6:00 am(화-금)
주일예배 2부: 11:00 am 유아, 유아부: 11:00am(주일)
토요 새벽 : 5:30am(화-금) 초·중·고등부: 11:00am(주일)

이종천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사랑으로 하나되고 은혜로 세워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213) 999-9298 www.Nachimban.org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나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이과목) 오전11:0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음채움)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찬란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주중새벽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노년일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영성침묵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저녁 7: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 풍요로운 삶 오전 9:30
화요 3.3.3 기도회 매달 둘째주 오전10:30 목요 TEE 양육 Zoom 오후 7: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10:00 한인타운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송금관 담임목사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u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상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즐거운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커뮤니티교회

예수님의 제자되기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ojeo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새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금요예배 저녁 7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김광석 담임목사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krkpc.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학생모집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INNEX PRO

Collision Center

아이넥스 프로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2811 Leeward Ave., LA, CA 90005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스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체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불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Water Leaks & Pipe Clogs

Drain & Sewer Cleaning

Pipe Repair & Replacement

Water Heaters

Toilets, Sinks, Disposal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전문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정력강화

배변은 숙변 제거와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정액당 \$70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참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백세사역 전문지도자 과정’ 수강생 모집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PULI)이 교회의 시니어 사역 리더를 양성하는 「백세사역 전문지도자 과정」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9월 개강하는 2기 과정은 1년 4 모듈 구조로 진행되며, 커리큘럼과 강사진을 보강했다.

1기 과정 ‘실천적 도구 제공’ 평가 받아

1기 수강생들은 “다음 주 교회 시니어 모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교육”이라는 평가를 남겼다. 특히 김용환 교수의 ‘시니어 심리 이해와 상담’은 노년기 성도들의 마음을 깊이 읽는 상담적 시야를 열어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세나 박사의 ‘말씀과 놀이로 섬기는 시니어 사역’ 세미나는 시니어 VBS를 포함한 다양한 사역 프로그램을 각 교회 현장에서 즉시 기획할 수 있는 실천적 도구를 제공했다.

2기 과정 하이브리드 방식 운영

2기 과정은 1년 4모듈, 총 44주로 구성된다.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태평양 표준시)까지 진행되며, 오프라인 현장 강의와 실시간 온라인(Zoom), 녹화 영상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된다. 미주 전역과 한국, 남미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다.

SPM01(2026년 9월 14일 개

강)은 ‘시니어 사역 신학개론’, ‘시니어 목회 프로세스’, ‘시니어를 위한 소그룹 사역’ 등 시니어 사역의 신학적·목회적 기초를 다룬다.

SPM02(2026년 12월)는 ‘영성 노년학’, ‘시니어 정서적 웰빙’, ‘시니어 정신 건강’, ‘시니어 건강 운동’ 등 통합적 돌봄의 관점을 제공한다.

SPM03(2027년 3월)은 ‘시니어 심리 이해와 상담’, ‘시니어 제자 훈련’, ‘인생 2막을 위한 설계: 평생 교육’, 등 사역 실행 역량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SPM04(2027년 6월)는 ‘미국 노인복지’, ‘황금기 선교사로 살기’, ‘시니어 돌봄 사역’, ‘복된 죽음의 준비’ 등을 다룬다.

신학 · 심리학 · 상담학 · 목회학 · 의료 전문가 강사로

2기 강사진은 CPU 평생교육원 이성희 원장(D.Min·D.ICS)을 비롯해 이상명 CPU 총장(Ph.D 신약학), 황성만 평생교육원 매니저(D.Min) 김기철 감신대 교수

(Ph.D 목회상담학), 김병호 목사(D.Min), 김용환 교수(Ph.D 목회상담학), 김재홍 목사(D.Min), 박민희 박사(D.Min), 송병일 목사(D.Min), 이진형 목사 등이 강의를 맡는다. 세미나 강사로는 김길로리아 전도사, 김세나 박사, 김정섭 US 메트로 뉴스 편집인, 이유나 강사, 정재현 연세대 교수(Ph.D)가 참여한다.

수강 대상은 시니어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다. 교회 직분이나 연령 제한은 없다.

수강료는 모듈별 분할 납부 시 각 SPM당 400달러이며, 1년 전체 선납 시 특별 할인이 적용돼 1,400달러로 조정된다.

1년 안에 4개 모듈을 모두 이수하면 수료증이 부여된다.

등록 링크(<https://forms.gle/VJRb-wS5Wts3XAV268>)

문의: 562-536-0128,

이메일: puli_pm@cpu.edu

홈페이지: <https://lifelong.cpu.edu>

개강: 2026년 9월 14일 (월)

등록 마감: 2026년 9월 7일 (월)

KWMF 대표회장 이 · 취임식 성료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대표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8월 1일 오전 10시 30분, 풀러튼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에서 개최됐다.

1부 감사예배에서 한기홍 목사가 ‘세계 한인 선교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한인 선교의 새로운 방향과 연합을 강조했다.

2부 이·취임식에서는 송상현 선교사가 이임하고, 몽골 선교사로 오랜 기간 사역해 온 김종진 선교사가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했다.

감신대, 연세대, 풀러튼교대학원에서 수학한 김종진 신임 대표회장은, 2002년부터 몽골 선교사로 사역하며 교회 개척과 자립 사역에 헌신해 왔다.

이·취임식에서는 최규남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총장과 이상진 KIMNET 상임대표가 축하하고



KWMF 대표회장 이 · 취임식이 은혜한인교회에서 개최됐다.

조용중 증경회장과 김종국 증경회장이 권면과 격려사를 나눴으며 한기홍 목사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와 은혜한인교회가 공동 호스트로 섬기며 행사 전반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세계선교를 위한 연합과 차세대

선교 지도자 양성이라는 공통의 비전을 가진 두 기관은 세계 한인선교를 위한 협력의 장을 제공했다.

이들은 이스트사이드 스쿨(Eastside School)을 통한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 지원,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선교사 및 차세대 선교 리더십 개발 지원 등을 통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민선 기자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체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견적 상담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 206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213-798-2200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www.kurbanbuilders.com

www.en.kurbanlike.com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강준민 칼럼

침묵을 배우는 지혜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침묵을 배우는 것도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주 설교해야 하는 제게 침묵은 늘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나 침묵은 삶의 기술이며 대화의 예술입니다.

음악의 침표가 선율을 아름답게 하듯, 침묵은 말에 깊이와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말을 많이 한 뒤에는 스스로 공허해지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말해야 할 때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밝히고 약자를 보호하며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용기 있게 말해야 합니다.

지혜는 무조건 침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를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고 권면합니다(약 1:19). 이 말씀 속에는 경청과 침묵과 감정 절제의 지혜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침묵도 배워야 합니다. 침묵의 중요성과 유익을 깨닫고, 침묵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첫째, 침묵은 혀를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입의 혀뿐 아니라 마음의 혀도 다스릴 줄 압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속으로 끊임 없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소리를 지를 때도 있습니다. 환경과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혀를 다스리는 사람은 마음을 다스릴 줄 압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잠 16:32).

둘째, 침묵은 경청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은 말하는 동안 들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자신이 할 말을 생각한다면,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청은 자신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침묵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자기 말을 경청해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는 말을 경청할 때 자녀는 자신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들어야 깨닫습니다. 들어야 분별합니다. 들어야 눈이 열립니다. 저는 ‘들음’을

‘얻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경청은 겸손입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듣고 배웁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혀를 다스리는 침묵
마음을 얻는 경청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듣지 않지만 겸손한 사람은 듣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듣고, 배우고, 순종합니다.

셋째, 침묵은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관계를 혼드는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어떤 자극에 너무 빨리 반응할 때 더욱 커집니다. 분노의 뿌리에는 좌절된 기대가 자리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기대한 것과 다르게 일이 전개될 때 우리는 쉽게 화를 냅니다. 물론 모든 분노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문제는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고, 상처를 주는 말로 흘러갈 때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는 기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침묵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어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침묵할 때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추스를 수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내뿜는 말은 가시처럼 상대방

을 찌릅니다. 화는 불과 같습니다. 그때 상처 주는 말을 더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침묵은 그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을 멈추게 합니다. 잠시 멈추면 성숙한 이성이 깨어납니다. 상대방의 말과 감정과 상황을 헤아리며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가치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피타고라스는 “말을 하려거든 침묵보다 더 가치 있는 말을 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넷째, 침묵은 고요를 가꾸는 지혜입니다. 침묵하며 기다리면 마음에 고요가 깃듭니다. 마음에 고요가 깃들면 신비로운 힘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뒤,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잦아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선명하게 들립니다. 함께 말로 대화할 뿐 아니라 침묵을 통해 교제할 수 있는 친구는 좋은 친구입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고,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친구는 하늘이 주신 선물입니다.

침묵을 배우는 것은 평생의 일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말의 양보다 말의 무게를 생각해야 합니다. 침묵은 말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말을 무르익게 하는 기다림입니다. 사랑에서 나온 침묵은 경청이 되고, 기도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말이 때에 맞는 은혜로운 말로 익어 가기를 바랍니다(잠 25:11; 골 4:6). 그 지혜가 바로 침묵의 지혜입니다.

진유철 칼럼

지혜를 구하면 주시리라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경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약4:3)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있는 반면,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1:5) 누구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응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쿠데타와 왕위 계승 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서열상 다윗의 장남 격이며 군중들이 지지하는 아도니아는 군신들과 다른 왕자들을 모아 스스로 왕이 되는 선포식을 강행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다윗의 결단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지혜, 렘셈마, 듣는 마음”을 구하였더니 그것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왕상3:10)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신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로 가장 많이 번역된 히브리어 ‘호크마’는 ‘분별력’이란 뜻으로 옳고 그름, 진짜와 가짜, 알곡과 가라지, 변화인지 변질이냐 변장인지를 분별하여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어 ‘야다’라

는 말로도 쓰였는데 ‘체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처리 능력인 “지혜”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티븐 스펔버그 감독의 영화 ‘윈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수용소장 아몬 괴트는 나치 장교로 잔혹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살인광입니다. 어느 날 닭한 마리가 도난당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는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남자죄수들을 모두 세워 놓고 외칩니다. ‘누가 닭을 훔쳤느냐? 한 사람이 닭을 들고 다녔는데 아무도 못 봤단 말이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그는 분노하여 아무 죄 없는 사람 한 명을 즉석에서 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말하지 않자 다시 총을 겨누며 범인을 밝히라고 위협합니다. 그때 겁에 질린 한 소년이 우니가 괴트는 묻습니다. ‘네가 훔쳤느냐?’ 소년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러자 괴트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누가 훔쳤는지 아느냐?’ 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방금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을 가리키며 ‘저 사

람이요.’라고 대답합니다. 소장의 자존심과 심리를 잘 분별하여 광기를 저지한 현장에서의 지혜입니다. 한국의 어느 권사님이 자꾸 오해를 만들고 성도들에게 분란을 일으키더니 급기야 목사님과 함께 하는 자리에 서도 유튜브에서 하는 엉뚱한 말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핸드폰을 열어보았더니 하루 12시간 이상씩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바쁘고 피곤하다고 예매는 안 나오면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 지혜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선한 것과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19세기 인도와 이란에서 선교사이자 성경 번역가로 사역했던 헨리 마틴 선교사의 일기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묵상하면서 보낸 시간보다 더 값진 시간은 내 인생에 없다.”는 말은 많은 사람을 깨우쳤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예수를 깊이 알므로 일을 잘 처리하는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람!

2026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 성 대 학 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SINCE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 음 대 학 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3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 aurahel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Th.M 신학석사
-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M.Div 목회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목회자 내 집 마련 세미나 2026



"목회자는 정말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사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의 삶은 지혜롭게 준비하십시오.

주택 구입은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대출은 가능한지,
정부와 각 기관의 보조금은 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에서는 찾기 어려운
목회자의 현실에 맞는 내 집 마련 전략을
한 자리에서 알려드립니다.

처음 준비하시는 분도, 이미 고민 중인 분도,
막연했던 내 집 마련의 꿈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시작하십시오.

일시: 2026년 9월 28일(월)
오전 10시 ~ 오후 1시

장소: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담임목사)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등록: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문의: 기독교일보 (213- 434-1170)



주최: 샬롬센터 (shalomcenter.net) / 특별후원: 기독교일보

강사: 이지락 장로 (샬롬센터 대표)

샬롬센터는 미국 남가주(LA 및 오렌지 카운티 등)에서
첫 주택을 구입하려는 한인 무주택자를 위해 연방정부 공인 주택교육,
1대1 구입 상담, 그리고 사·카운티·주정부의 다운페이 보조금(Grant)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내집 마련을 돕고 있습니다.

이상명의 광장과 골방

AI 시대, 목회자가 마주한 네 가지 균열 (1)



이 상 명 총장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어느 주일, 목사 A는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며 묘한 공허감을 느꼈다. 설교는 완성도가 높았다. 구조는 탄탄했고, 예화는 적절했으며, 결론은 감동적이었다. 그런데 그 주간에 본문 앞에서의 씨름이 없었다. 눈물이 없었다. 회중을 향한 절박한 간구가 빠져 있었다. AI가 초안을 썼고, 그는 그것을 다듬었다. 설교는 훌륭했지만, 그것이 과연 ‘그의 것’이었는지. 그는 처음으로 그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다.

AI는 교회의 기능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설교 준비, 심방 메모, 상담 자료, 교육 콘텐츠까지, AI는 목회의 가시적 절차라면 무엇이든 능숙하게 처리한다. 마치 교회 사역의 모든 업무를 인턴 한 명이 밤새 처리해놓

은 것 같다. 단, 그 인턴은 새벽 기도를 모른다. 도구로서의 AI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충분히 좋은 기준’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충분히 좋은 것은 더 나은 것을 향한 갈망을 말없이 잠재운다. 그리고 갈망이 사라진 자리에서, 강단의 인격성, 공동의 신앙 언어, 목회자의 소명, 예언자적 발언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속도로 공동화(空洞化)된다. 곧, 겉은 남아 있으나 그 안의 실질과 생명은 서서히 빠져나간다.

설교와 권위: 설교는 목회자 자신의 것으로 남아 있는가

‘AI 설교와 인간 설교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말이 AI의 능력으로 칭송받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AI는 수천 편의 설교 데이터를 학습해 기승전결의 구조, 예화의 배치, 감동적인 결론의 패턴을 정확히 익혔다. 인간 청중이 ‘좋은 설교’라고 느끼는 문장 리듬과 감정선을 통계적으로 최적화해 출력한다. 그러나 목회자는 바로 그 칭송 앞에서 전율해야 한다.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은, 설교가 ‘정보 전달 행위’로 환원되었다는 고백이기 때문이다.

설교학자 필립스 브룩스(Phillips Brooks)

는 설교를 “인격을 통해 전달되는 진리”로 정의했다. 정보가 아니라 인격이 매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에 사무쳐 불붙는 것 같아서 참을 수 없었노라”(렘 20:9)고 고백했다. 그 내면의 불꽃이 설교를 설교이게 한다. AI는 수천 편의 설교를 학습했지만, 단 한 번도 본문 앞에서 밤을 새운 적이 없다. 그 씨름의 흔적, 그 불꽃은 AI가 통계화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다. 설교가 언어의 완성도로만 평가되기 시작하는 순간, 강단은 이미 브룩스가 말한 ‘인격의 매개’를 내려놓은것이다.

물론 미주 한인 목회 현실에서 이민 교인 상담, 영어권 2세 사역, 행정, 심방을 한 몸으로 감당하면서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 일은 인간적 한계를 넘는다. AI에 기대는 것은 나태함이 아니라 생존이다. 그러나 명확한 원칙 없는 사용은 서서히 의존으로 굳어진다. 문제는 AI 설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좋다’는 것이다. 충분히 좋은 대안은,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가려는 동기의 뿌리를 말없이 잘라낸다.

매 설교마다 “이 본문 앞에서 내가 씨름한 것”, “이 성도의 얼굴을 떠올리며 고쳐 쓴 문장”을 두세 줄 남겨두는 설교 일지를 권면하고 싶다. 일지를 채우지 못한 주간이 있다면,

그것이 그 설교에 무언가 빠져 있다는 가장 정직한 신호일 것이다.

신앙 교육과 공동체: 같은 교회, 다른 신앙

같은 교회 청년 다섯 명에게 묻는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10년 전이라면 표현은 달라도 같은 신학적 토대 위에서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다르다. 각자가 AI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고, AI는 각자의 관심과 맥락에 맞게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설명했다. AI의 답변은 이단적이지 않다. 오히려 대체로 균형 잡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단은 경계선이 보이지만, 균형 잡힌 개인화는 경계선 자체를 지운다. 균열은 내용이 아니라 구조에서 온다.

초대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행 2:42)고 했다.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가 말했듯, “기독교 신앙은 고독한 개인이 채택하는 신념 체계가 아니라, 특정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삶의 방식이다.” 신앙은 혼자 다운로드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것이다. AI는 개인에게 맞춤형 신앙 정보를 제공하지만, 바로 그 맞춤형이 공동체를 해체하는 동력이 된다. (계속)

목동 칼럼

스물 한 번의 이사 이야기



신 병 옥 목사

미라클LA교회

비전 50 선교회

필자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큰딸은 수년 전, 20대 후반에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이사를 하였습니다. 부모의 꿈을 떠나 자신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이사였습니다. 막내딸은 이제 대학 졸업반이 됩니다. 최근 마지막 학년을 시작하기 위해 집을 싸 들고 캠퍼스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세상살이는 수많은 이사의 연속입니다. 필자 역시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업의 흥망성쇠를 따라 여러 번 이사를 하였습니다.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사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사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또 이사했고, 미국으로 오면서 삶의 터전 자체를 옮기는 큰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헤아려 보니 60년을 살아

오는 동안 21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어떤 이사는 기쁨으로 했고, 어떤 이사는 형편 때문에 해야 했습니다. 어떤 이사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했고, 또 어떤 이사는 정든 사람들과 장소를 뒤로해야 하는 아쉬운 이사였습니다.

그 많은 이사를 돌아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이사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이사를 합니다. 어떤 이는 학업을 위해, 어떤 이는 직장을 위해, 또 어떤 이는 자녀의 교육이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사합니다. 결국 이사는 단순히 집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저마다의 목적을 위해 삶의 자리를 옮기는 일입니다. 돌아보면 필자의 스물 한 번의 이사에도 그때마다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한 번의 이사가 또 다른 삶의 문을 열어 주었고,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길로 필자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이사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지나온 길을 다시 바라보면, 인생의 이사에는 눈앞의 목적보다 더 깊은 목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믿음의 사람들도 삶의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 주실 땅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든 것을 알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이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이사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동은 단순한 거주지의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면 필자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당시에는 생활 때문에, 공부 때문에, 목회 때문에 옮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모든 이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였고, 어떤 곳에서는 훈련 받게 하셨으며, 또 어떤 곳에서는 새로운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사는 단순히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하여 어디로 가는가’의 문제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야 할 때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이사가 훗날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이동이었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사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더 큰 이사를 생각하게 합니다.

최종 버전의 이사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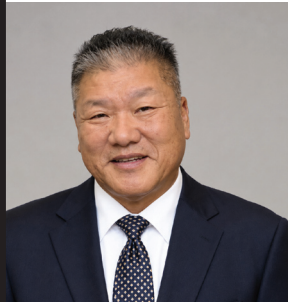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요 14:2)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마지막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살이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이사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마지막 이사를 위한 연습인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선교지를 옮겨 다니며 사역하는 가운데 필자는 늘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집을 작게 해서,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필자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어떻게 마지막 이사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그리운 당신은 어떠신가요? 마지막 이사를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 이제 기억합니다. 인생의 모든 이사는 마지막 이사를 위한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사에는 이제는 무거운 이삿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故 김헌식 전도사 (Kim, Heon Sik)

1953년 6월 11일 ~ 2026년 8월 6일 (향년 73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충성된 사역자로 20년 동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섬기신 김헌식 전도사님께서 2026년 8월 6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기에 삼가 부고를 전합니다.

김헌식 전도사님은 연세대학교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를 졸업하시고 교화개보 사역에 헌신하셨으며 1996년 미국으로 이주하셨습니다. (고) 채동선 전도사님이 개척하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마가교회)에서 2006년부터 사역하신 김헌식 전도사님은 채전도사님 소천 후 LA 마가교회와 OC 마가교회를 충성되이 섬기고 동역하시다가 자택에서 평안 중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LA 마가교회, OC 마가교회, 발렌시아 마가교회 성도 일동

장례예배 :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장
일시 : 2026년 8월 15일(토) 오후 3시
장소 : LA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1011 S Harvard Blvd, Los Angeles CA 90006)
집례 : 이원철 목사 / 이찬영 목사

<유가족>
배우자 : Stella Park
장녀 : Grace Kim 사위 : Johnny Ramirez
차녀 : Erin Kim
손녀 : Evelyn Ramirez 손주 : Theo Ramirez

장례관련 문의전화 : 213-516-2878

헨더슨주사랑장로교회 목회 리더십 계승

남동우 원로목사 추대 · 홍경헌 담임목사 취임...24년 목회 아름답게 마무리

헨더슨주사랑장로교회(홍경헌 목사)가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 남동우 목사 은퇴 및 원로목사 추대식과 홍경헌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남동우 목사와 성도들은 헨더슨 주사랑장로교회 개척 이후 24년간의 목회를 감사하며, 홍경헌 목사를 제2대 담임목사로 세우고 교회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1부 예배는 서오석 목사(CRC 한미노회 서기·나성평화교회 담임)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남덕종 목사(라스베가스 필그림교회 담임)의 기도와 성경봉독 후 김태형 목사(ANC 온누리교회)가 고린도전서 15장 10~11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2부 은퇴 및 원로목사 추대식에서는 남동우 목사가 지난 24년간의

목회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남은 삶을 오직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며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 것을 서약했다. 교인들도 남 목사의 은퇴를 축복하고 원로목사로 추대하며, 함께 아름다운 덕을 세워 갈 것을 다짐했다.

교회는 남 목사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하며 그동안의 헌신에 감사했다.

데이브 드라취 메인넬(David Drach-Meinel, (Christ the Servant Lutheran Church Pastor Emeritus) 목사와 우동은 목사, 임범훈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다며, 문상연 목사(CRC 한미노회 직전 서기)가 권면했다. 남동우 목사는 은퇴자 답사를 통해 지난 목회 여정을 돌아보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헨더슨주사랑장로교회가 남동우 목사 은퇴 및 원로목사 추대식과 홍경헌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3부 홍경헌 목사 취임식에서는 목사와 교인이 각각 서약했다. 홍목사는 담임목사로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성경 말씀과 교회의 교리를 따라 맡겨진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며 교회의 정치와 행정을 존중할 것을 다짐했다.

교인들도 홍경헌 목사를 담임목사로 받아들이고 그의 가르침과 치리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협력해 복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것을 서약했다. 이어 집례자의 선포와 기도 후 나영소 장로와 마지숙 집사가 취임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유진소 목사(호산나교회 담임)

와 송병주 목사(선한정지기교회 담임)가 영상으로 권면과 축사를 전했다며, 아주사대학교 다니엘 뉴먼(Daniel Newman) 교수가 격려사를 전했다. 홍경헌 목사의 답사에 이어 ANC 남성중창단이 축가를 불렀고, 박동건 목사(CRC 전 한인 디렉터)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남동우 목사는 인천주사랑장로교회와 마포제일장로교회에서 사역했다. 2002년 헨더슨주사랑장로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후 라스베이거스와 헨더슨 지역 복음화를 위해 헌신했다.

제2대 담임으로 취임한 홍경헌 목사는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M.Div.) 학위를, 아주사대학교에서 목회학 박사(D.Min.) 학위를 받았다. ANC 온누리교회에서 2007년부터 2025년까지 전도사와 목사로 섬겼으며, 2025년 헨더슨 주사랑장로교회 동사무사로 부임해 남 목사와 함께 목회 승계 과정을 준비해 왔다.

헨더슨주사랑장로교회는 이번 원로목사 추대와 담임목사 취임을 계기로 지난 24년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대를 잇는 믿음의 공동체로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를 향한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해 나갈 계획이다.

조셉 리 기자



헨더슨주사랑장로교회 원로목사 추대식 및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 후 단세사진.



Pastor Boaz Park
The house of prayer movement
Seoul, Korea



Pastor Joshua M. Kang
Lakeview Covenant Church
Northbrook, IL



Pastor Joshua I. Kang
Full Gospel Las Vegas Church
Las Vegas, NV



Pastor Jay Morgan
JAMA Ministries
Lindale, TX



Pastor Shine Kim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Fullerton, CA



Pastor Samuel Han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Fullerton, CA

영어권을 위한 JAMA 기도 컨퍼런스

영어권을 위한 지저스 어웨이킹 님 기도 컨퍼런스(JESUS AWAKENING PRAYER CONFERENCE)가 “그의 얼굴을 구하라”(Seek His Face)라는 주제로 9월 3일(목)부터 5일(토)까지 플러튼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개최된다.

일정은 9월 3일 저녁, 4일 하루종일, 5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강사로는 보아즈 박(Boaz Park, 한국기도의 집), 조슈아 강(Joshua M. Kang, 레이크뷰 연합교회), 조슈아 I. 강(Joshua I. Kang,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제이 모건(Jay

Morgan, JAMA), 샤인 김(Shine Kim,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중동 선교사 사무엘 한(Samuel Han,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마이크 김(Mike Kim)이 참여하며, 레비스탕스가 찬양을 인도한다.

자마에 따르면, 이번 컨퍼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위해 모이는 모임으로, “기도에 관한 컨퍼런스가 아니라, 기도를 위한 컨퍼런스”이다.

이들은, “전략을 짜거나 영감을 얻기 위한 모임이 아니다. 함께 하

나눔을 만나고, 그분의 백성이 실제로 나타나 그분을 찾을 때 그것이 행하실 모든 일에 마음을 열기 위해 모인 것이다.”

일반 등록비는 75달러이며, 대학생 및 고등학생은 무료이다. 식사는 현장에서 1인당 10달러에 구매할 수 있다. 본 행사에는 숙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참가자는 개적으로 숙소를 예약해야 한다.

웹사이트: www.jamaglobal.org
장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lifornia

Great Commission Seminary 시니어 선교사 모집

엘림선교공동체와 미주성시 최하는 The Great Commission 화운동본부 공동가 공동으로 주 Seminary가 오는 8월 3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12주 과정으로 LA 세계선교교회에서 개최된다. 강의는 매주 월, 화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열리며 원서 마감은 8월 31일(월)이다. 세계선교교회 김창섭 목사, Vi-

sion800 Global 대표 이준성 멕시코 선교사, 콜롬비아 성서공회 강사 김성환 선교사, 엘림 선교 공동체 대표 허승호 파나마 선교사, 미주 성서화 운동본부 이사장 김재권 장로, 살롬센터 대표 이지락 장

로가 강사로 나서 12주간 시니어의 선교와 사명에 대해 강의하게 된다. 세미나의 등록금은 300불이며 문의는 213-820-3850(김재권 장로)으로 하면 된다.

TV 기독교일보 신앙간증

늘 새롭게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신앙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늘 새롭게'에 나오셔서 진솔하게 신앙간증하실 분이나
주위에 추천하실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신청 및 문의 : 기독교일보 213-739-0403 / chdailya@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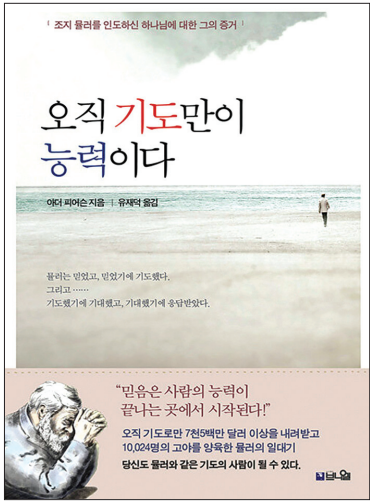
*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교일보'를 검색하세요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기도의 사람 조지 물리의 믿음의 본

조지 물리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오직 기도만이 능력이다

아더 피어슨 | 유재덕 역
브니엘 | 416쪽

너무 어두워서
길이 보이지 않으면
믿음이
안내한다

실제로 길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전혀 알지 못하는 길을
인도하는 손길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물리의 삶이 그랬다.
또한 우리의 삶도
그렇 것이다

오직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해서 따라간다면
말이다

조지 물리(George Muller, 1805-1898)는 1만 명의 고아를 양육한 ‘고아의 아버지’이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신실한 믿음의 거장이다.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Autobiography of George Muller』라는 책을 읽게 했는데, 아더 피어슨(Arthur Tappan Pierson, 1837-1911)이 쓴 『오직 기도만이 능력이다』에서 자주 언급하는 물리의 기도 일기, 『일화』가 바로 이 책인 것 같다.

아더 피어슨은 물리뿐 아니라 찰스 스펔전, 아도니람 제드슨, D. L. 무디 등과도 폭넓게 교제하던 유명한 목사이자 저술가이다. 물리와 동시대 사람이자 가까운 사이였던 피어슨이 물리의 전기를 쓰기 위해 물리의 사위였던 제임스 라이트에게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를 매우 기쁘게 여기고 그의 저작을 물리의 공식 전기로 추천하겠다는 말이 책 에필로그에 담겼다.

『George Muller of Bristol: His Life of Prayer and Faith』가 원서 제목인 이 책은 조지 물리의 영적 훈련과 헌신적 삶,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갔던 사역 등 많은 교훈과 감동을 주는 전기라고 생각한다.

먼저 피어슨은 조지 물리의 기도와 믿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도, 물리라는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불량한 사람이었는지 숨기지 않았고, 구원받은 후에도 죄와 씨름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밝힌다.

엘리아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면서도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은 것처럼, 물리도 특별히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는 것으로 놀라운 기도 응답받은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한다.

또 물리가 고아를 돌보고 또 성경지식연구원을 운영하며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부족함 없이 항상 공급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나 부족하게도 하지 않으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않으셨음을 알았다.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야 살 수 있었던 연약 백성들의 삶처럼, 물리 또한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았던 것이다. 놀라운 것은 그가 그런 삶을 축복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또 놀라운 것은 ‘Faith Mission(믿음 선교)’이라 불리는 물리의 사역 철학이었다. 그는 고아원과 성경지식연구원의 사역 보고를 원하는 이들에게 배포하면서도, 물질적 필요를 그들에게 구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했다.

물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역하려는 이들이 인위적으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며 후원을 얻어내려 할 때, 물리는 그들이 ‘믿음 선교’를 완전히 놓쳐버렸다고 책망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물리의 믿음은 그만큼 절실하면서도 진실했고, 그 결과 그의 ‘일화’를 읽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

물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사모했다. 말씀 읽기와 기도가 그의 바쁘고 복잡한 일상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부록에는 물리가 선택 교리를 혐오했던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택 교리가 정말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고백이 나온다.

그는 또 첫 번째 아내와 두 번째 아내, 그리고 전직 동역자였던 외동딸을 먼저 떠나보냈는데, 그때마다 비통과 슬픔에 잠식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는 순간적 정신 승리가 아니라, 물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오래 그리고



▲조지 물리.

지속적으로 신뢰하며 동행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물리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의 기도의 삶이 그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유산을 받아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했다. 삶 전체를 하나님을 위하여 바친 사람이었다.

피어슨이 말한 것처럼 물리를 우상처럼 숭배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리고 물리 자신이 그것을 극도로 미워하겠지만, 그래도 그의 삶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뒤를 잇는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겼다.

그리고 그의 일편단심, 오직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 삶의 간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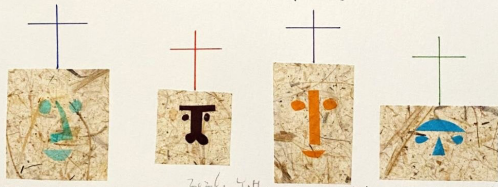
독자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또 도전한다. 함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 같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마땅히 어떠해야 할지 돌아보게 한다.

아더 피어슨의 〈오직 기도만이 능력이다〉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읽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렇게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며 또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능히 삼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대상 29:12



Wealth and honor come from you; you are the ruler of all things. In your hands are strength and power to exalt and give strength to all.
1 CHRONICLES 29:12

龍水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생령통큰설령탕

48시간 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의 맛!

GOOD MORNING SPECIAL EVERYDAY 7AM ~ 10AM

표고우거지해장국 \$10.96 +tax

굿모닝스페셜

통큰설령탕 \$10.96 +tax

북어국 \$10.96 +tax

주문시 “서민행복”으로 오더해주세요.

5주년 기념 투고스페셜 설령탕 \$10.99 Tax 포함가
설령탕, 백미, 감치, 깍두기
10AM ~ 2PM

시니어를 위한 ‘어름칠 보양식’
삼계탕 스페셜
\$19.35 Reg. → \$14.99 +tax
7월 1일 ~ 8월 31일

*광고에 쓰인 음식 사진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체/주/문 환영
주 7일 오픈 7AM ~ 10PM
(구)베버리순두부 자리
Uber Eats 딜리버리 합니다.

(213)277-1339 | (213)263-9446
2717 W. Olympic Blvd. #108, Los Angeles, CA 90006



[서성록, 한 점의 그림] 불신앙 시대의 변증

폐쇄 공포 일으키는 충격적 작품, ‘무덤 속의 그리스도’

당연한 것이 거부되는 시대, 완벽한 부정 통과한 긍정만이 현대 허무주의 이길 수 있어
홀바인이 묘사한 차가운 시신, 성육신의 신비 치유의 처방

바젤의 화가 한스 홀바인(Hans Holbein the Younger)은 1521년 서구 미술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작품 중 하나로 꼽히는 ‘무덤 속의 그리스도(The Body of the Dead Christ in the Tomb)’를 완성했다.

이 작품은 본래 제단화의 아랫부분인 프레델라(predella)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자체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하는 심리적 공포를 선사한다.

작품의 형식적 특성은 매우 독특하다. 가로 약 2미터, 세로 30센티미터에 불과한 비정상적으로 가늘고 긴 직사각형 목판은, 마치 무덤 입구에서 시신을 직접 대면하는 듯한 폐쇄 공포를 불러 일으킨다.

홀바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주제로 삼으면서 중세의 신비주의적 미화나 르네상스의 영웅적 육체미를 완전히 배제했다. 그림 속 그리스도는 부패의 징후와 앙상한 시신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작가가 의도한 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를 직시하게 하려는 엄정한 사실주의적 기획이었다. 이에 얽힌 유명

한 일화가 있다. 1867년 러시아의 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Fyodor Mikhailovich Dostoevskii)는 스위스 바젤 미술관(Kunstmuseum Basel)에서 이 그림과 마주했다. 당시 그는 카람진의 『러시아 여행자의 편지』를 통해 알게 된 이 작품을 직접 보기 위해 바젤을 찾았다. 그의 아내 안나 도스토옙스카야는 당시 남편이 느꼈던 전율과 자신이 체험한 목격담을 기록했다.

“그는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그림 앞에 멈춰 섰다. 나는 그 그림을 보고 혐오감을 느꼈다. 전통적인 묘사와는 달리 그리스도는 뼈와 갈비뼈가 드러나고, 손과 발은 상처투성이에 부어오르고 푸르스름하게 변해 마치 썩어가는 시체처럼 앙상하게 마른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얼굴은 고통에 일그러져 있고, 눈은 반쯤 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표정도 없다. 코, 입, 턱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남편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고, 간질 발작이 일어나기 직전의 표정이 나타났다(Anna Dostoevskaya, Dos-

toevsky: Reminiscences, Liveright, 1977, 134-135쪽).”

도스토옙스키에게 홀바인의 ‘무덤 속의 그리스도’는 단순한 예술적 재현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면’이라는 무신론적 가정에 대한 시각적 증명이었으며, 신성조차 집어삼키는 자연법칙의 무자비함을 고발하는 처절한 기록이었다.

바젤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을 한 지 2년 뒤, 도스토옙스키는 소설 『백치(The Idiot)』를 출간했다. 소설 속에서 이 그림은 주인공 미시킨 공작과 로고진의 대화 속에 등장하며, 작품 전체의 형이상학적 긴장을 유지하는 주요 장치가 된다.

홀바인의 그림이 작가에게 그러했듯이 소설 속 주인공에게도 커다란 충격을 안긴다. “이런 그림을 좋아하다니! 이런 그림을 보다가는 있던 신앙도 사라지겠네(도스토옙스키, 『백치(상)』, 김근식 역, 열린책들, 2000, 340쪽)!”

미시킨은 로고진의 집 문 위에 걸린 이 그림을 보고 탄식한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청년 이폴리트 역시 그림을 보고 절망감을 토로한다.

“그림 속에는 방금 십자가에서 풀려난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었다. ... 6시간 동안 계속 되었던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아낸 자의 시체였다. ... 그림을 보면 자연은 거대하고 무자비한, 어떤 말도 못하는 짐승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 이 그림 속에서 자연이란, 위대하고 귀중하기 짝이 없는 창조물을 닦지는 대로 포획하여 무감각하게 분쇄시켜 마구 삼켜 버리는 엄청난게 큰 점단기계처럼 보인다(도스토옙스키, 『백치(하)』, 김근식 역, 열린책들, 2000, 627-629쪽).”

믿음은 회의의 담쟁이를 타고 의심의 벽을 오른다. “만약 그를 신봉하며 추앙했던 모든 제자들과 미래의 사도들이 ... 그의 시체를 보았다면 그들은 이 시체를 보면서 어떻게 저 순교자가 부활하리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같은 책, 628쪽)?”

이 같은 의심은 현대 사회의 기계적 자연관과 자유주의가 도달하는 종착지인 허무주의와 맞닿아 있다. 무신론과 자유주의의 끝에서, 현대인들은 스스로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는 인본주의적 강박이 가져온 영적 피로감을 느낀다. 도스토옙스키가 홀바인의 그림에서 발견한 것은 이런 ‘무의미의 공포’였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창조론에 근거한 예술은 의

미를 무(無)에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물 속에 이미 스며 있는 ‘하나님의 곡조’를 발견한다.

예술가가 창조물의 의미에 반응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과정은, 현대인들에게 세상이 혼돈의 덩어리가 아니라 창조주의 메시지가 담긴 값진 선물임을 보여준다. 이는 파편화된 개인들이 난무하는 현대 사회에서 ‘공유된 의미의 세계’를 제공하며 삶의 궁극적 목적을 묵상하게 돕는다.

우리가 ‘앙상하고 푸르스름한 시체’를 마주했다면, 이폴리트처럼 머리가 하얘졌을지 모른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이 절망의 끝이아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설적 기회라고 여겼다.

“우리는 죽음을 금기시하고 육체의 쾌락만을 찬미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가 홀바인의 그림에서 목격한 그 ‘절망의 끝’이아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홀바인의 그리스도는 우리 시대의 화려한 우상들을 파괴하며, 고통받는 신체 속에 깃든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한다(Malcolm Muggeridge, A Third Testament, Little, Brown and Company, 1976, 120-12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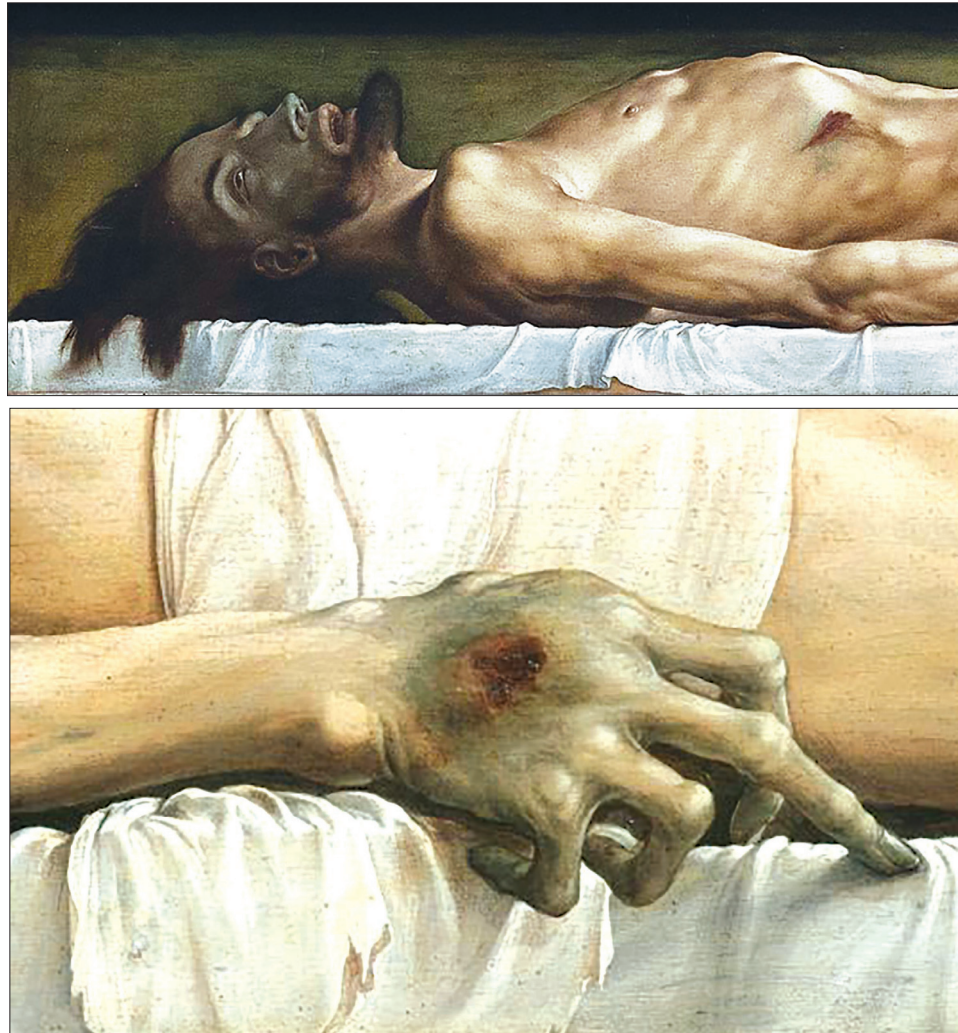
도스토옙스키는 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에 이토록 집착했을까? 프랭크 관(Frank Guan)은 도스토옙스키가 “기존 사회 현실에 맞서 자신의 기독교 신념을 엄격하고 무자비하게 시험”한 것은 절대적 가치가 사라진 시대에 깊은 영적 굶주림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고 분석한다.

당연한 것이 의문시되고 거부되는 시대 속에, 그는 가장 완벽한 부정을 통과한 긍정만이 현대의 허무주의를 이길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말콤 머거리지는 세상을 하나님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거대한 ‘스테레오 시스템’으로 비유한다. 이처럼 온 우주에 가득한 신성한 공명을 포착하여 동시대의 언어로 들려주려면, 하늘의 주파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인 조율자가 필요하다.

예술가는 세상 속에서 파괴의 소음이 아닌, 창조주의 세밀한 곡조를 수신해 증폭시키는 안테나가 된다. 머거리지의 비유를 빌려 말하자면, 홀바인이 묘사한 ‘차가운 시신’은 신앙을 파괴하는 독이 아니라 성육신의 신비라는 치유의 처방이 돼 우리를 영원한 빛의 실재로 안내하고 있다.

서성록 명예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무덤 속의 그리스도(세부).

“

사역자는 있는데,
사역할 차량이 없습니다”

+

당신의 차량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복음의 길을 열어줍니다

교회, 선교지, 캠퍼스,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됩니다.

사역자를 연결합니다

예배자,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사랑의 자리로 연결합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힙니다

국내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됩니다.

당신의 믿음을 남깁니다

후대에 남겨질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일에 사용됩니다.

당신의 차량기부가
복음의 여정이 됩니다!

남아도, 오래되어도 괜찮습니다.
운행이 어려워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선교지 이동

캠퍼스·청소년 사역

지역사회 섬김

교회 및 기관 사역

차량도네이션

문의 및 신청
☎ 213-434-1170
chdailya@gmail.com

주관: 기독교일보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오픈청지기재단과 CBS TV가 함께하는

천국의 찬양제

{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이다. }

시편 100:4

참가 대상

남가주 지역에 위치한
교회 성가대

접수 파일 형식

비디오: MOV, MP4
링크: YouTube

결선 일시

2026/10/25(일)
오후 5시

장소

남가주 새누리 교회
(신관)

참가 절차

예심을 통해 뽑힌 최종 8팀이
10월25일 오후 5시에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접수 방법

이메일
praise@openstewardship.com

시상 내역

1등: \$10,000
2등: \$7,000
3등: \$5,000

예심 접수기간

2026/8/3 부터
2026/9/4 까지

주관/주최



후원



문의

213.674.7810
213.593.4885